



통신서비스 Trend & Data

리레이팅 진행 중

인터넷·통신·지주. 최관순, 3773-8812



Analyst

최관순

ks1.choi@sks.co.kr
02-3773-8812

통신서비스

리레이팅 진행중

1Q21 호실적을 기록한 통신주는 최근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적상향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 여전. 2 분기 이후에도 실적의 가시성 높으며, 배당도 확대될 전망. 이에 통신주에 대한 비중확대 전략 유효하다는 판단. 분할 불확실성이 곧 제거될 SK 텔레콤 탑픽으로 제시. 주가 상승폭이 낮았던 LG 유플러스 단기적으로 가장 유망하며, 배당수익률 가장 높은 KT는 주가의 하방이 가장 견고

1Q21 실적비교:통신업이 견인한 호실적

통신3사 1Q21 영업이익은 3사 모두 시장예상치 대비 10% 이상 상회하며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5G 및 IPTV 가입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안정화 기조에 따른 마케팅비용 및 CAPEX 감소에 따른 감가상각비 안정화가 호실적의 주요 원인이다. 이와 같은 기조는 큰 변수 없이 2 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통신업체의 호실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Trend: 통신주 주가 추가 랠리 가능

연초 이후 통신주의 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연초 업체별 주가 차별화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3사간 주가 수익률이 유사해졌다. 연초 이후 SK 텔레콤, KT, LG 유플러스 주가는 각각 33.2%, 29.2%, 26.0% 상승했다. 향후에도 주가 상승가능성이 높은데 2 분기 이후에도 이어질 호실적, 배당확대, 밸류에이션 매력 등이 그 근거이다. 히 양호한 1Q21 실적발표 이후 3사의 이익 추정치가 상향조정 되면서 여전히 매력적인 멀티플을 보유하고 있다.

Data: 5G 와 IPTV 가입자 증가세 지속

5G 와 IPTV 가입자 순증이 지속되고 있다. 3월말 국내 5G 가입자는 1,448 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회선 중 20.4%에 해당한다. 3월 5G 순증가입자는 81.3 만명으로 2020년 월 평균 5G 순증가입자 60 만명을 상회하였다. 대부분의 신규 단말기가 5G 인 만큼 특별한 마케팅 활동 없이도 5G 월 순증가입자는 80만명 내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3월 IPTV 순증가입자는 12.8 만명으로 전년 월평균 순증가입자 12.4 만명 소폭 상회하였다. MSO 의 매각 이후 유료방송 시장 내 경쟁구도는 완화 가능성이 높아 IPTV 로의 가입자 유입은 지속될 전망이다.

통신주에 대한 비중확대 전략 유효

통신주에 대한 비중확대 전략이 유효하다. 올해 높은 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큰 변수가 될만한 요인이 없는 실적 상향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통신업종 중 SK 텔레콤을 탑픽으로 제시한다. 분할을 앞두고 이사회를 통해 분할안이 확정될 경우 분할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자회사 가치에 대한 본격적인 제고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년부터 지속된 호실적에도 주가가 가장 부진했던 LG 유플러스는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이 유력하며, 3사 중 예상 배당수익률이 가장 높은 KT는 주가의 하방이 가장 견고하다는 판단이다..

Contents

1. 1Q21 통신 3사 실적 비교	3
2. Trend	13
3. Data	30

Compliance Notice

- 작성자(최관순)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 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SK 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21년 5월 10일 기준)

매수	91.06%	중립	8.94%	매도	0%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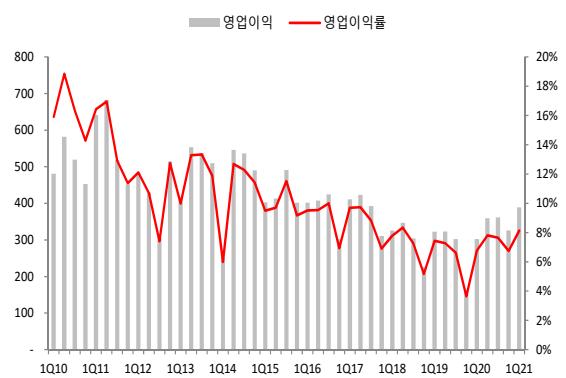
1. 1Q21 통신 3사 실적 비교

2021년 1분기 이동통신 3사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3사 모두 영업이익 시장예상치 대비 10% 이상 상회했으며, 순이익도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 5G 및 IPTV 가입자 확대에 따라 통신업이 호조를 보인 결과이다. 특히 LG유플러스는 분기 사상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을 시현했으며, 2009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통신 3사 1Q21 실적 요약			(단위: 십억원)		
항목	구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매출액	잠정치	4,780.5	6,029.4	3,416.8	
	시장예상치	4,768.6	6,029.1	3,426.9	
	차이	0.2%	0.0%	-0.3%	
영업이익	잠정치	388.8	444.2	275.6	
	시장예상치	345.8	386.9	237.5	
	차이	12.4%	14.8%	16.1%	
순이익	잠정치	1,504.4	302.6	200.9	
	시장예상치	386.4	241.0	154.5	
	차이	289.3%	25.6%	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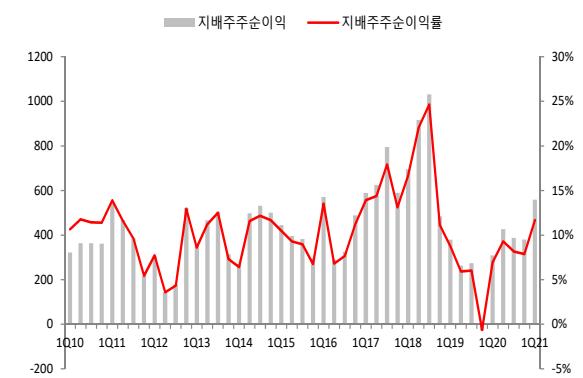
자료 각 사

SK 텔레콤 분기별 영업이익 및 이익률 추이 (단위: 십억원)



자료: SK 텔레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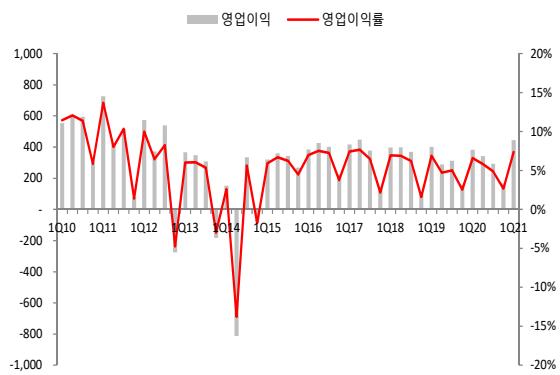
SK 텔레콤 분기별 순이익 및 이익률 추이 (단위: 십억원)



자료: SK 텔레콤

KT 분기별 영업이익 및 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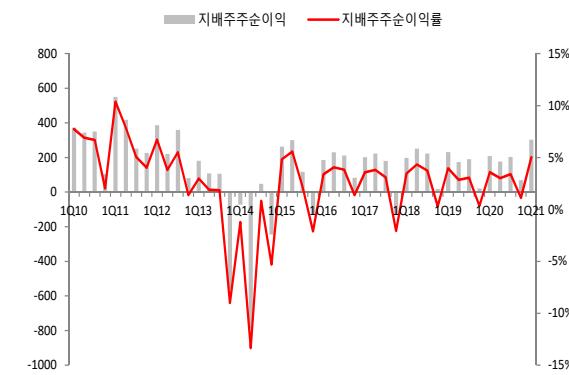
(단위: 십억원)



자료: KT

KT 분기별 순이익 및 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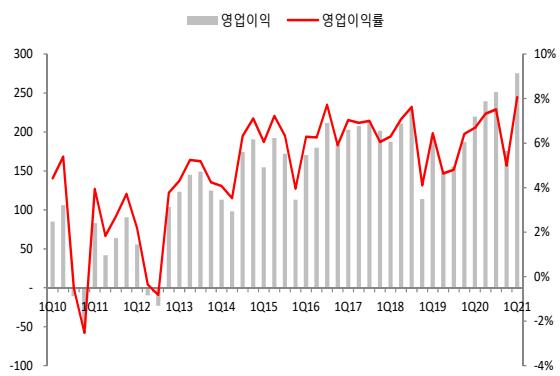
(단위: 십억원)



자료: KT

LG 유플러스 분기별 영업이익 및 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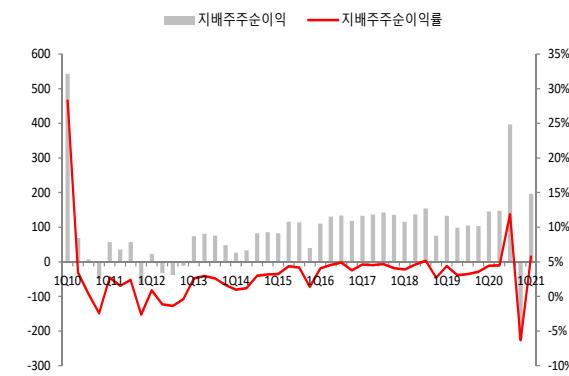
(단위: 십억원)



자료: KT

LG 유플러스 분기별 순이익 및 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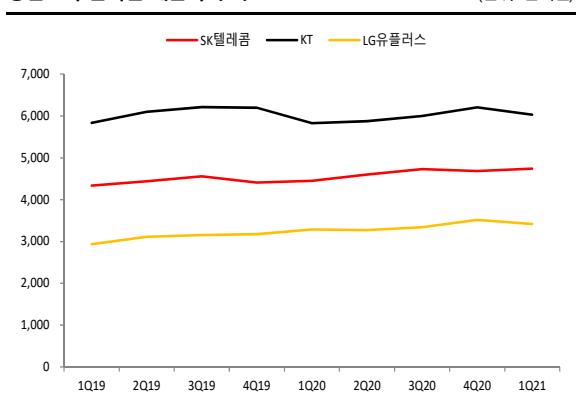
(단위: 십억원)



자료: K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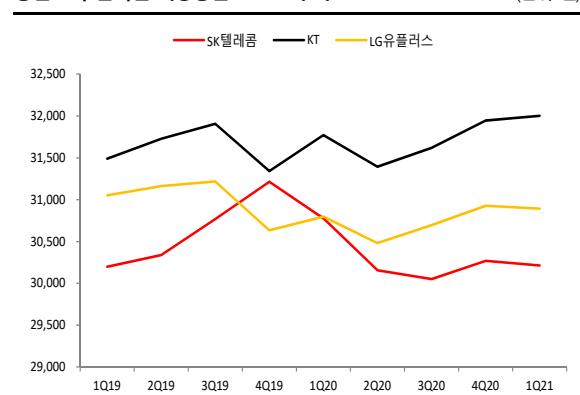
이동통신 ARPU는 KT가 32,003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3사 중 유일하게 전년동기 및 전기 대비 ARPU가 증가했다. KT가 높은 ARPU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5G 가입자 비중(회선기준)이 25.3%로 가장 높기 때문이다. SK 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5G 가입자 비중은 각각 22.8%, 22.5%이다.

통신 3사 분기별 매출액 추이



자료: 각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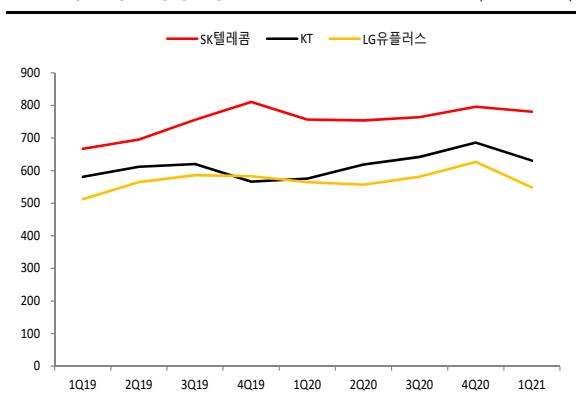
통신 3사 분기별 이동통신 ARPU 추이



자료: 각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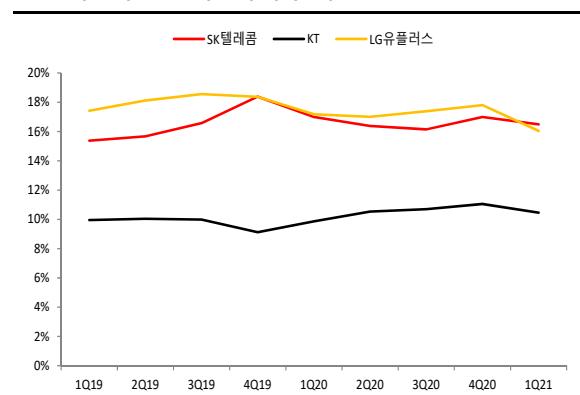
통신 3사의 마케팅비용은 모두 전년동기 대비 하락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전년동기 대비 12.5%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3사 중 유일하게 전기 대비로도 3.0% 감소하며 특유의 효율적 비용집행력을 보여줬다. 감가상각비도 안정화되었다. 3사 모두 전기 대비 감가상각비가 하락했다. 1분기 특성상 CAPEX 규모가 작았으나 5G 대규모 투자는 마무리된 만큼 향후 감가상각비는 안정화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통신 3사 분기별 마케팅비용 추이



자료: 각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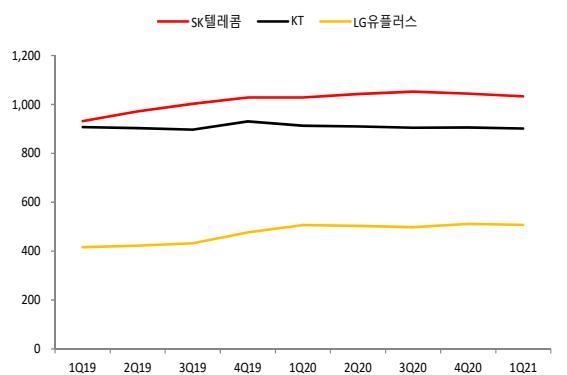
통신 3사 분기별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용 추이



자료: 각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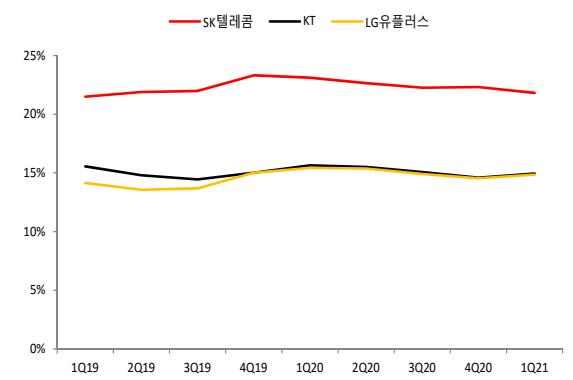
통신 3 사 분기별 감가상각비 추이

(단위: 십억원)



자료: 각 사

통신 3 사 분기별 매출액 대비 감가상각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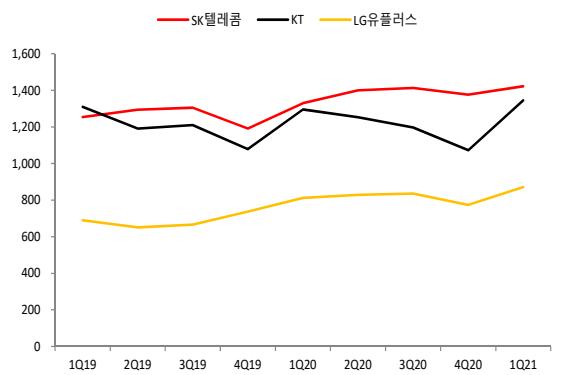


자료: 각 사

1Q21 통신 3 사의 수익성도 대폭 개선되었다. 3 사 모두 EBITDA Margin 이 전년동기 및 전기 대비 개선되었다. KT 와 LG 유플러스는 전기 대비 각각 5.0%, 3.5% 마진이 개선되었으며, SK 텔레콤은 3 분기만에 EBITDA Margin 30%대를 회복했다. 영업이익률도 3 사 모두 전년동기 및 전기 대비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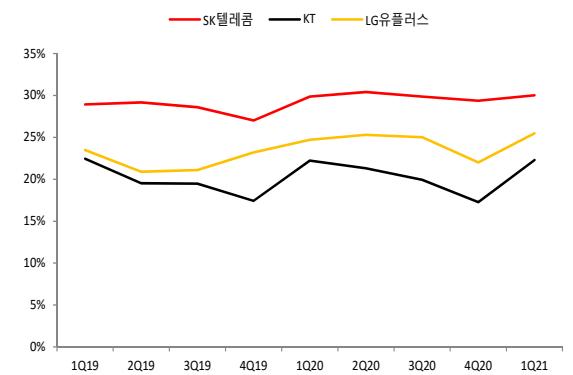
통신 3 사 분기별 EBITDA 추이

(단위: 십억원)



자료: 각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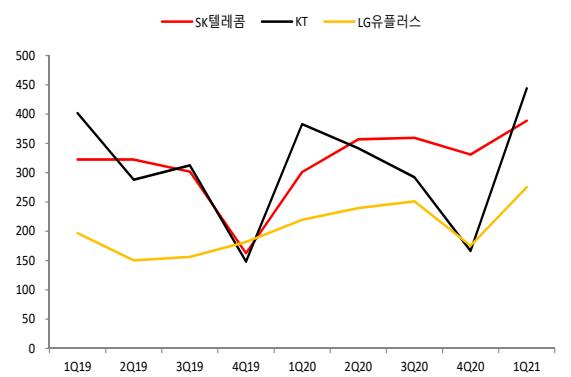
통신 3 사 분기별 EBITDA Margin 추이



자료: 각 사

통신 3사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

(단위: 십억원)



자료: 각 사

통신 3사 분기별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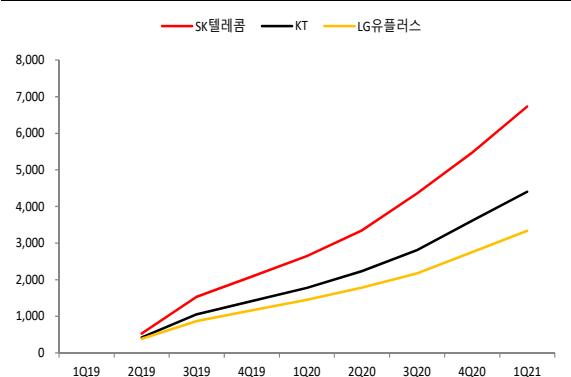
SK텔레콤 (Red), KT (Black), LG유플러스 (Yellow)



자료: 각 사

통신 3사 분기별 5G 가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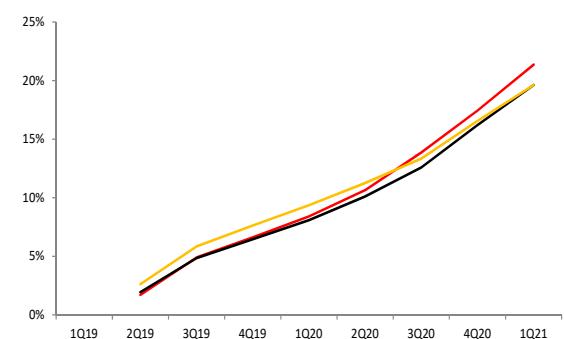
(단위: 십억원)



자료: 각 사

통신 3사 분기별 5G 가입자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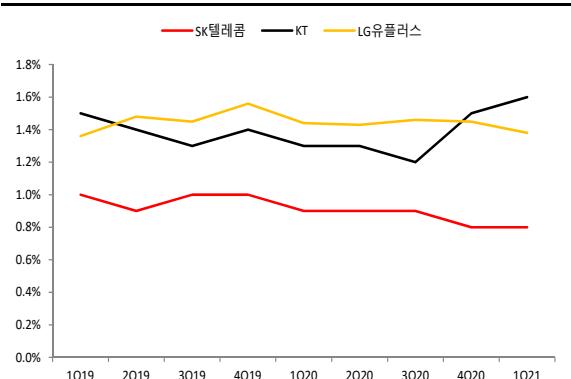
SK텔레콤 (Red), KT (Black), LG유플러스 (Yellow)



자료: 각 사

통신 3사 분기별 이동통신 해지율

(단위: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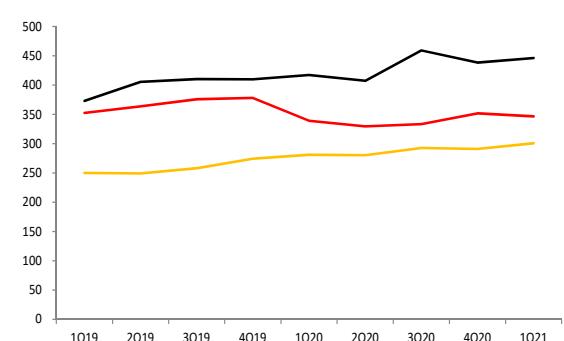


자료: 각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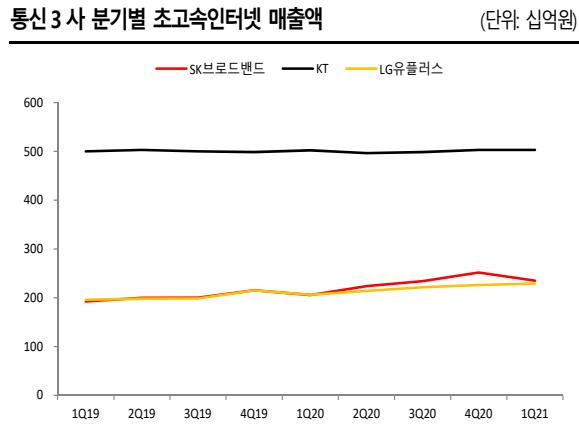
통신 3사 분기별 IPTV 매출액

(단위: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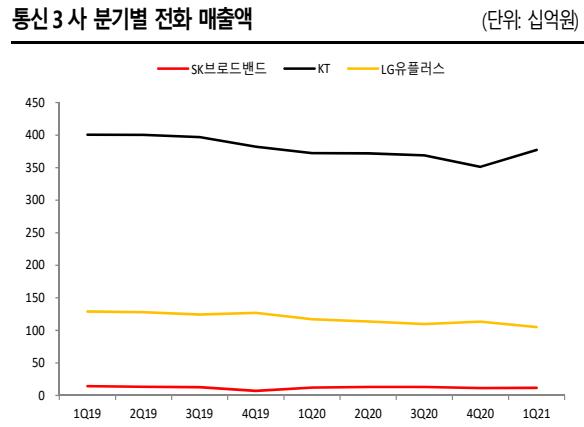
SK브로드밴드 (Red), KT (Black), LG유플러스 (Yellow)



자료: 각 사



자료: 각 사



자료: 각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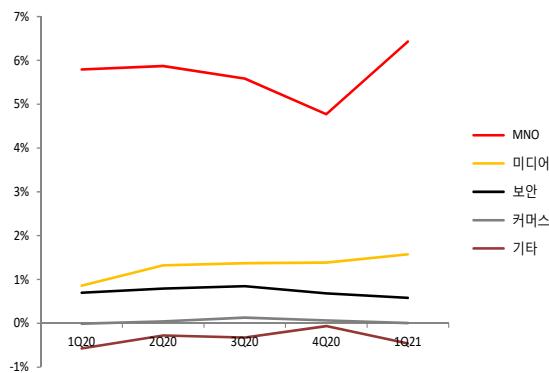
SK 텔레콤은 이동통신 부문을 비롯한 New ICT 부문에서 고른 성장이 기대된다. 1Q21 MNO 와 미디어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0.6%p, 0.7%p 개선되었다. 5G 및 IPTV 가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MNO 및 미디어 부문의 추가적인 이익률 개선 가능성이 높다. MNO 및 미디어 사업부문의 실적개선으로 SK 텔레콤의 2021년 영업이익률도 0.7%p 개선된 7.9%로 예상된다.

SK 텔레콤 분기별 실적전망 (단위: 십억원)

	1Q20A	2Q20A	3Q20A	4Q20A	1Q21P	2Q21F	3Q21F	4Q21F	2020A	2021F	2022F
영업수익	4,450.6	4,603.3	4,731.4	4,839.3	4,780.5	4,856.9	4,966.3	5,106.2	18,624.6	19,709.9	20,583.5
MNO	2,922.8	2,939.8	2,940.6	2,938.4	2,980.7	3,009.4	3,029.4	3,046.3	11,741.6	12,065.9	12,538.7
미디어	823.5	918.4	966.8	1,008.4	967.0	992.6	1,033.8	1,091.3	3,717.1	4,084.7	4,254.9
S&C	291.4	323.0	353.3	370.9	350.5	360.7	382.2	402.8	1,338.6	1,496.2	1,612.8
커머스	190.3	192.6	206.6	224.7	203.7	214.3	229.1	253.9	814.2	900.9	997.9
기타	222.6	229.5	264.1	296.9	278.6	279.8	291.8	311.9	1,013.1	1,162.1	1,179.1
영업비용	4,149.3	4,246.2	4,371.7	4,508.1	4,391.7	4,465.4	4,568.8	4,729.6	17,275.3	18,155.5	18,916.3
영업이익	301.3	357.1	359.8	331.1	388.8	391.4	397.5	376.6	1,349.3	1,554.4	1,667.2
영업이익률	6.8%	7.8%	7.6%	6.8%	8.1%	8.1%	8.0%	7.4%	7.2%	7.9%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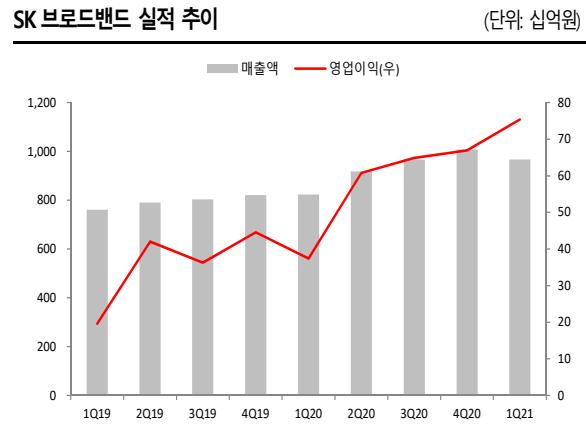
자료: SK 텔레콤, SK 증권

SK 텔레콤 사업부문별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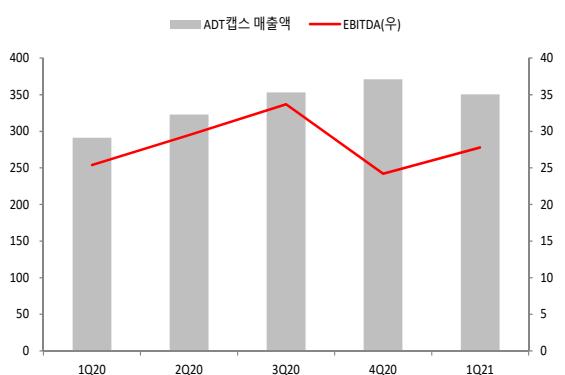
자료: SK 텔레콤

SK 브로드밴드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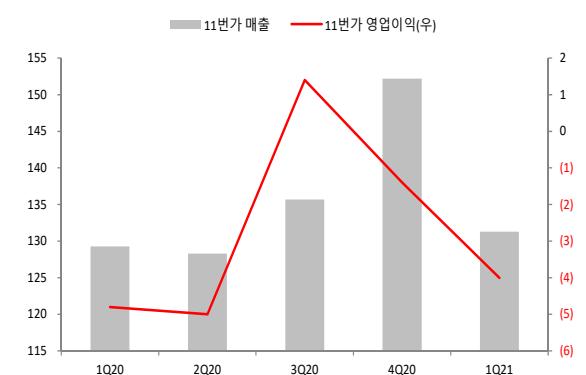
자료: SK 브로드밴드

ADT 캡스 실적 추이



자료: SK 텔레콤

11 번가 실적 추이



자료: SK 브로드밴드

KT의 2021년 1분기 영업이익은 4,442 억원으로 2017년 2분기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호실적의 원인 중 하나는 유선전화의 매출감소를 잘 방어낸 것이다. 정액상품 판매 호조 등에 기인하는데 1Q21 정도의 매출 수준이 유지된다면 5G와 IPTV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통신업에서의 추가적인 실적개선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코로나 19 영향으로 부진했던 BC 카드도 국내 매출액이 반등에 성공했다. 2021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쟁사 대비 높은 영업이익 성장이 예상된다.

KT 분기별 실적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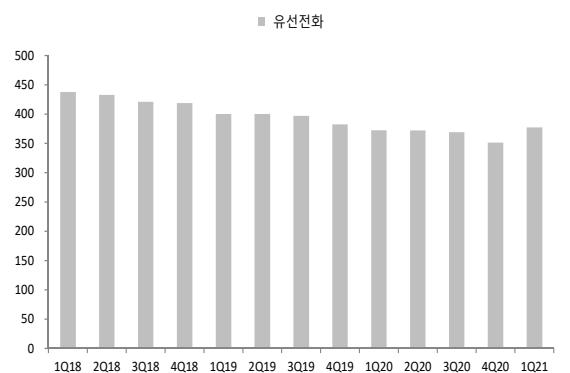
(단위: 십억원)

	1Q20A	2Q20A	3Q20A	4Q20A	1Q21P	2Q21F	3Q21F	4Q21F	2020A	2021F	2022F
영업수익	5,831.7	5,876.5	6,001.2	6,207.3	6,029.4	6,057.8	6,150.5	6,452.3	23,916.7	24,690.0	25,450.8
서비스수익	5,107.0	5,196.6	5,240.0	5,302.5	5,230.4	5,246.8	5,200.7	5,483.8	20,846.1	21,161.7	22,151.3
단말수익	724.8	679.9	761.2	904.7	799.1	811.0	949.8	968.6	3,070.6	3,528.4	3,299.5
KT	4,429.1	4,339.6	4,520.5	4,590.0	4,574.5	4,493.7	4,606.9	4,735.6	17,879.2	18,410.8	18,940.3
무선	1,735.7	1,722.5	1,742.1	1,733.4	1,770.7	1,785.0	1,797.7	1,814.7	6,933.7	7,168.1	7,481.2
유선전화	372.5	372.2	369.2	351.5	377.3	364.1	360.1	353.9	1,465.4	1,455.4	1,368.0
인터넷	502.5	496.7	498.7	503.3	503.2	507.0	511.2	514.0	2,001.2	2,035.3	2,075.1
IPTV	417.6	407.6	459.3	438.6	446.2	451.7	460.7	470.0	1,723.1	1,828.5	1,958.1
기업	674.9	701.1	690.3	707.9	684.2	711.6	710.3	736.9	2,774.2	2,843.1	2,964.8
부동산	45.8	43.1	45.4	50.8	41.3	43.3	45.8	51.4	185.1	181.8	183.7
단말	680.1	596.4	715.5	804.5	751.6	631.0	721.2	794.7	2,796.5	2,898.6	2,909.5
그룹사	2,274.9	2,499.7	2,528.6	2,760.9	2,406.1	2,524.6	2,567.0	2,817.1	10,064.1	10,314.8	10,509.8
BC카드	799.4	867.1	863.4	856.4	839.5	876.6	890.2	880.4	3,386.3	3,486.7	3,583.6
스카이라이프	167.9	177.7	194.0	176.5	166.9	182.9	180.0	178.6	716.1	708.4	725.5
콘텐츠 자회사	177.9	177.8	176.6	218.1	199.6	192.2	186.7	228.8	750.4	807.3	855.3
에스테이트	106.7	104.4	76.2	77.2	62.6	91.8	79.2	86.4	364.5	319.9	329.1
기타	1,023.0	1,172.7	1,218.4	1,432.8	1,137.4	1,181.1	1,231.0	1,443.0	4,846.9	4,992.5	5,016.4
연결조정	-872.2	-962.8	-1,047.9	-1,143.7	-951.1	-960.6	-1,023.4	-1,100.5	-4,026.6	-4,035.5	-3,999.4
영업비용	5,448.6	5,534.7	5,708.8	6,040.5	5,585.2	5,638.6	5,776.8	6,225.6	22,732.6	23,226.2	23,818.3
영업이익	383.1	341.8	292.4	166.8	444.2	419.1	373.7	226.8	1,184.1	1,463.8	1,632.5
영업이익률	6.6%	5.8%	4.9%	2.7%	7.4%	6.9%	6.1%	3.5%	5.0%	5.9%	6.4%

자료: KT, SK 증권

KT 유선전화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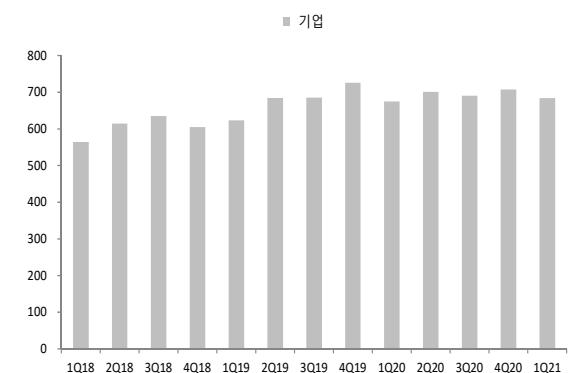
(단위: 십억원)



자료: KT

KT 기업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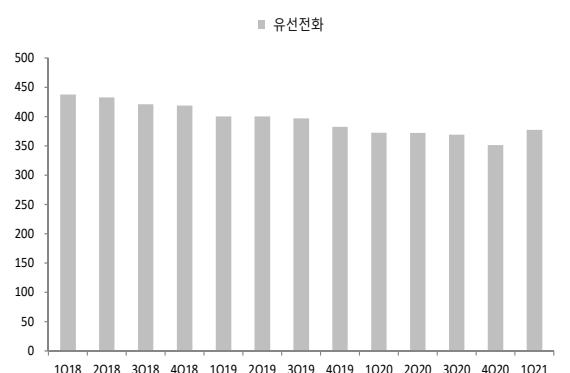
(단위: 십억원)



자료: KT

BC 카드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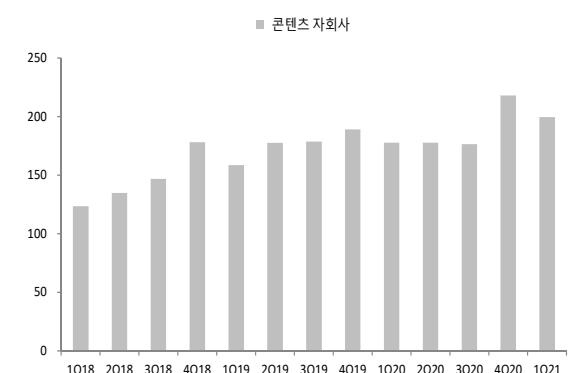
(단위: 십억원)



자료: KT

KT 콘텐츠 자회사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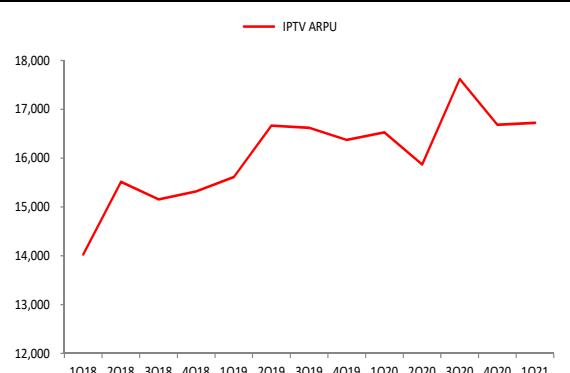
(단위: 십억원)



자료: KT

KT IPTV ARPU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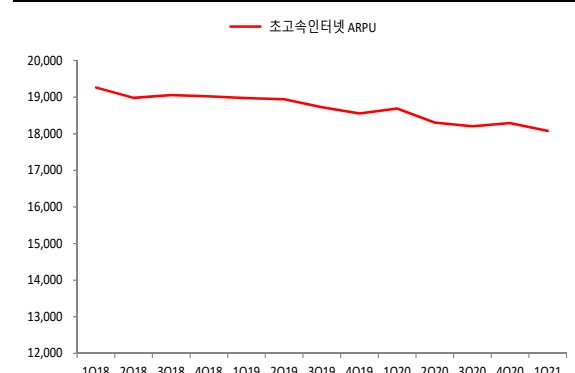
(단위: 원)



자료: KT, SK증권

KT 초고속인터넷 ARPU 추이

(단위: 원)



자료: KT, SK증권

분기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LG 유플러스는 경쟁사와 달리 통신부문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다. 통신업이 텐어라운드 시기인 만큼 LG 유플러스의 수혜도 클 전망이다. 그 동안 LG 유플러스의 약점은 화웨이 장비 사용에 대한 이슈와 경쟁사 대비 낮은 배당수익률을 들 수 있다. SA 5G CAPEX 가 확대됨에 따라 화웨이 장비 사용의존도는 차츰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5G 대규모 투자사이클이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배당확대 가능성도 높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그 동안 호실적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만큼 향후 탄력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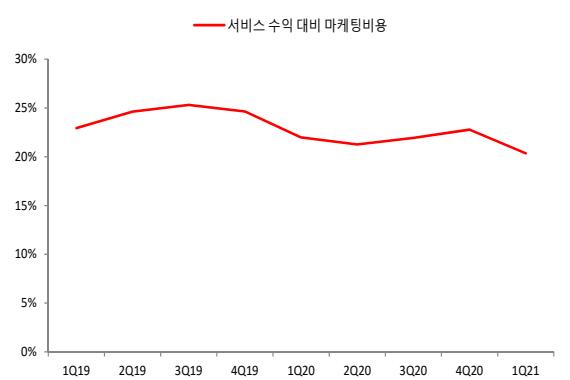
LG 유플러스 분기별 실적전망

(단위: 십억원)

	1Q20A	2Q20A	3Q20A	4Q20A	1Q21P	2Q21F	3Q21F	4Q21F	2020A	2021F	2022F
영업수익	3,286.6	3,272.6	3,341.0	3,517.3	3,416.8	3,510.2	3,581.9	3,686.8	13,417.5	14,195.6	15,163.7
서비스수익	2,571.5	2,619.0	2,650.0	2,750.1	2,691.9	2,819.2	2,878.9	2,942.8	10,590.6	11,332.7	12,298.4
컨슈모바일	1,411.2	1,424.6	1,459.7	1,517.5	1,497.1	1,582.4	1,613.4	1,653.0	5,813.0	6,345.9	7,055.9
스마트홈	487.3	494.6	514.3	517.3	530.0	542.0	552.5	562.7	2,013.5	2,187.2	2,367.1
전화	117.1	113.8	109.6	113.3	104.9	104.0	103.0	102.0	453.8	413.9	405.6
기업인프라	313.4	345.0	334.0	366.6	341.5	359.0	369.0	377.0	1,359.0	1,446.5	1,491.0
단말수익	715.1	653.7	691.0	767.2	724.9	691.0	703.0	744.0	2,827.0	2,862.9	2,865.3
영업비용	3,066.9	3,032.9	3,089.8	3,341.8	3,141.1	3,259.2	3,316.0	3,457.9	12,531.5	13,174.2	14,003.8
영업이익	219.8	239.7	251.2	175.5	275.6	251.0	265.9	228.9	886.2	1,021.4	1,160.0
영업이익률	6.7%	7.3%	7.5%	5.0%	8.1%	7.2%	7.4%	6.2%	6.6%	7.2%	7.6%

자료: LG 유플러스,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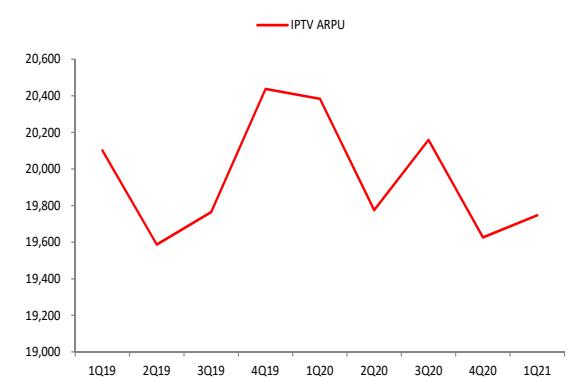
LG 유플러스 서비스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추이



자료: LG 유플러스, SK 증권

LG 유플러스 IPTV ARPU 추이

(단위: 원)



자료: LG 유플러스, SK 증권

1. Trend

(1)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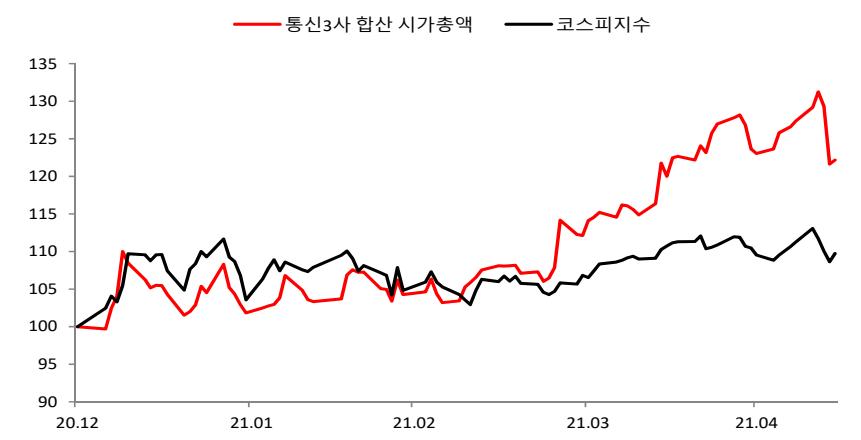
2021년 들어 높은 주가수익률을 기록한 통신주는 4월과 5월에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통신 3사 합산 시가총액은 4월 7.9% 상승했다. 동일기간 코스피는 2.8% 상승에 그쳤다. SK 텔레콤과 LG 유플러스가 각각 10.4%, 7.8% 상승했으며, KT는 0.4% 상승에 그쳤다. 하지만 5월과 5월 14일까지 KT가 9.3% 주가가 상승했으며, LG 유플러스는 12.1% 상승하며 SK 텔레콤 주가 상승률 4.4%를 넘어섰다. 결과적으로 연초부터 SK 텔레콤은 33.2%, KT가 29.2%, LG 유플러스가 26.0% 주가가 상승하며 유사한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최근에는 그 동안 주가가 부진했던 LG 유플러스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업체간 수익률의 균형이 맞춰지고 있다. 최근 코스피 조정에 따라 방어주로의 매력이 부각된 가운데 3사 모두 영업이익 시장예상치를 10% 이상 상회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긍정적인 주가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의 주가 상승흐름은 실적, 배당,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1분기에 이어 2분기 이후에도 양호한 실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5G 가입자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SO를 인수한 효과가 유료방송부문에서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보업인 통신이 호조를 보이고 가운데 SK 텔레콤과 KT가 추진하고 있는 비통신 비즈니스 부문에서도 높은 성장세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비용 측면에서도 이동통신 부문의 시장안정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CAPEX 규모 감소로 감가상각비 안정화가 예상되어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된다.

올해 이익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배당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SK 텔레콤은 분할 이후에도 작년과 같이 최고 10,000 원의 배당이 확정된 가운데 SK 하이닉스 이익분의 배당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2020년 배당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KT도 별도기준 조정순이익의 50%를 배당하기로 한 만큼 올해 추가적인 배당여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경쟁사 대비 배당수익률이 낮았던 LG 유플러스의 경우에도 5G 대류고 투자가 마무리된 만큼 추가적인 배당 확대 가능성이 높다.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 코스피의 12개월 Forward PER은 11.5 배 수준이나 국내 통신 3사 모두 10 배 미만이다. 12개월 Forward PBR을 비교해도 코스피가 1.2 배 수준이나 KT가 0.5 배, SK 텔레콤이 0.8 배, LG 유플러스가 0.8 배로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

통신 3 사 및 코스피지수 2021년 상대수익률 추이



자료 Quantwise

주: 최근 통신 3 사 합산 시가총액 하락은 SK 텔레콤 자사주 소각에 따라 기계적으로 계산된 시가총액의 하락일 뿐 소각 이후 SK 텔레콤 주가는 오히려 상승

4월~5월 14일 SK 텔레콤 주가 수익률 15.3%

(단위: 원)



자료: Quantwise

4월~5월 14일 KT 주가 수익률 9.7%

(단위: 원)



자료: Quantwise

4월~5월 14일 LG 유플러스 주가 수익률 20.8%

(단위: 원)



자료: Quantwise

4월~5월 14일 LG 헬로비전 주가 수익률 5.3%

(단위: 원)



자료: Quantwise

4월~5월 14일 스카이라이프 주가 수익률 13.2%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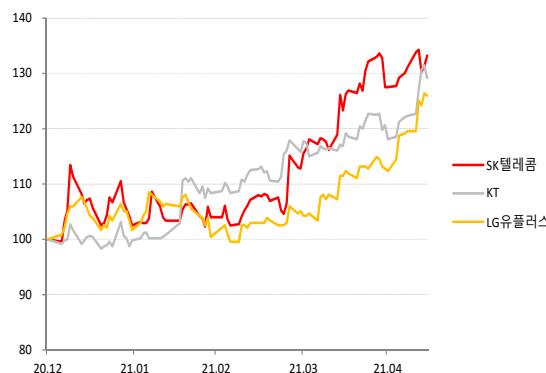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4월~5월 14일 현대퓨처넷 주가 수익률 -9.0%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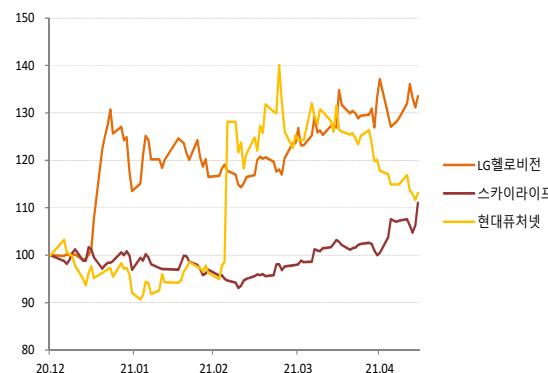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연초 이후 통신 3사 상대수익률



자료: Quantiwise

연초 이후 케이블 3사 상대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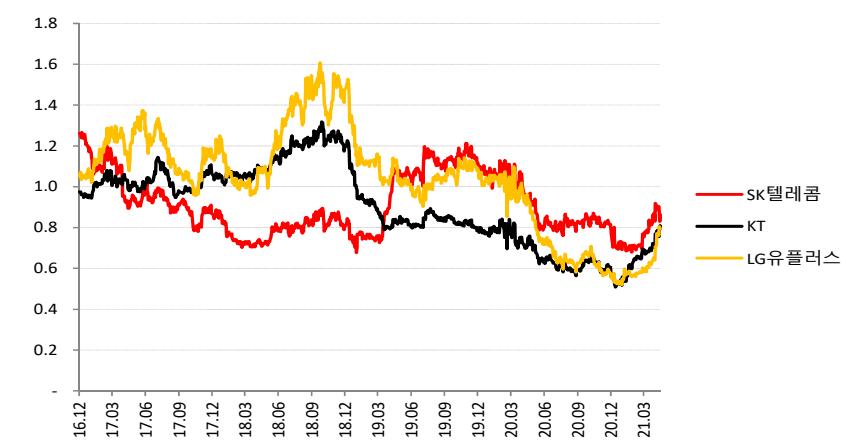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2) 멀티플

최근 통신주 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멀티플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다. 1Q21 실적개선으로 이익추정치가 상향조정 되었기 때문이다. SK 텔레콤 12 개월 Forward PER은 3월말 10.1 배에서 9.9 배로 오히려 하락했다. 동일기간 KT도 9.0 배에서 9.1 배로 소폭 상승에 불과했다. LG유플러스는 7.8 배에서 9.1 배로 상승했으나 멀티플 상승폭(17.7%)은 주가상승폭(20.8%)에 미치지 못했다. 현재 통신사의 멀티플은 최근 5년 동안 비교 시 대체로 중단에 불과해 역사적 관점에서 매력적이라 판단한다. 또한 콜스피 대비 여전히 멀티플 할인을 받고 있어 시장과 비교해도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라 할 수 있다.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만큼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부담스럽다도 할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코스피 대비 통신 3사 12M Forward PER 프리미엄 추이



자료 SK증권

SK 텔레콤 12MF PER 9.9 배

(단위: 배)



자료: Quantwise

SK 텔레콤 12MF PBR 0.76 배

(단위: 배)



자료: Quantwise

SK 텔레콤 12MF EV/EBITDA 5.3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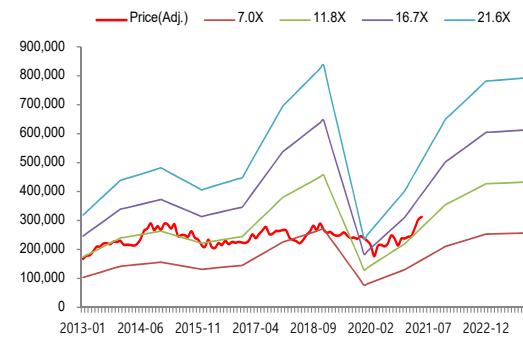
(단위: 배)



자료: Quantwise

SK 텔레콤 PER 밴드차트

(단위: 원)



자료: Quantwise

SK 텔레콤 PBR 밴드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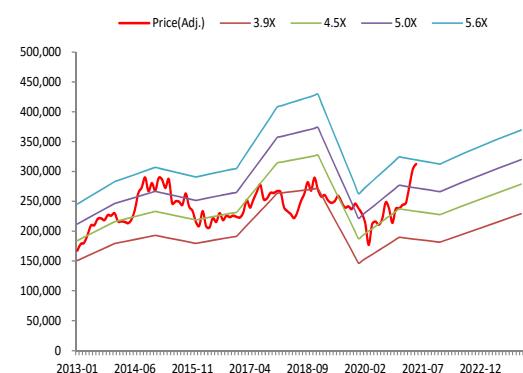
(단위: 원)



자료: Quantwise

SK 텔레콤 EV/EBITDA 밴드차트

(단위: 원)



자료: Quantwise

KT 12MF PER 9.1 배

(단위: 배)



자료: Quantwise

KT 12MF PBR 0.50 배

(단위: 배)



자료: Quantwise

KT 12MF EV/EBITDA 2.3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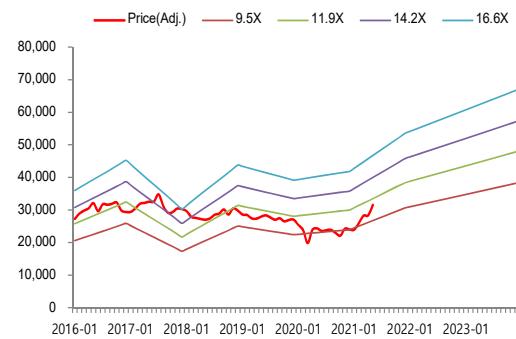
(단위: 배)



자료: Quantwise

KT PER 밴드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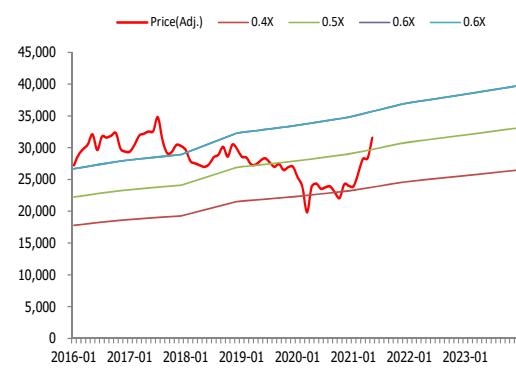
(단위: 원)



자료: Quantwise

KT PBR 밴드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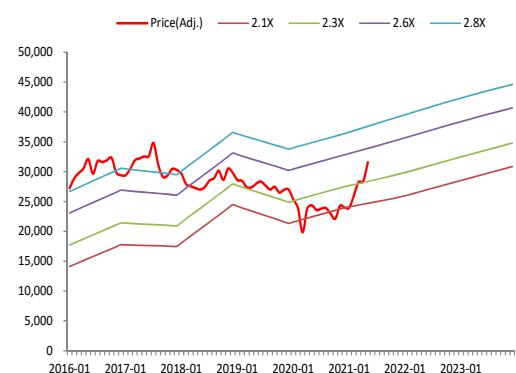
(단위: 원)



자료: Quantwise

KT EV/EBITDA 밴드차트

(단위: 원)



자료: Quantwise

LG 유플러스 12MF PER 9.1 배

(단위: 배)



자료: Quantiwise

LG 유플러스 12MF PBR 0.80 배

(단위: 배)



자료: Quantiwise

LG 유플러스 12MF EV/EBITDA 3.2 배

(단위: 배)



자료: Quantiwise

LG 유플러스 PER 밴드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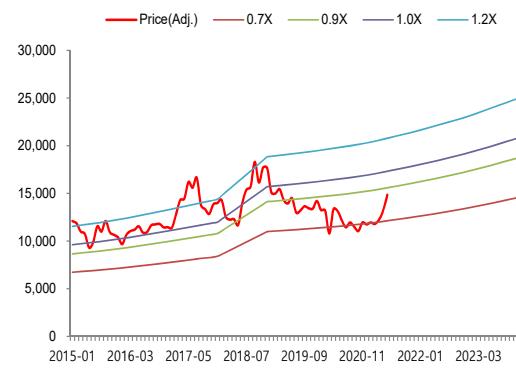
(단위: 원)



자료: Quantiwise

LG 유플러스 PBR 밴드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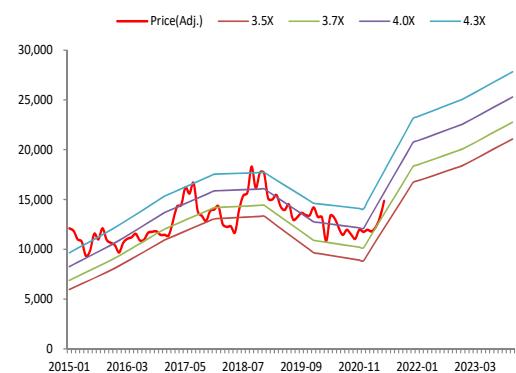
(단위: 원)



자료: Quantiwise

LG 유플러스 EV/EBITDA 밴드차트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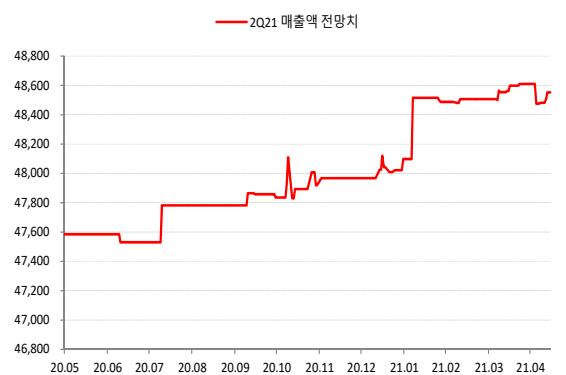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3) 컨센서스

1Q21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만큼 2Q21 및 2021년 통신주 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상향조정 되었다. 2Q21 영업이익을 보면 SK 텔레콤과 KT는 실적발표 이후 각각 3.5%, 5.7% 상향조정 되었다.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LG 유플러스도 2.5% 영업이익이 상향조정 되었다. 2021년 지배주주순이익도 SK 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가 각각 7.5%, 4.7%, 5.3% 상향조정 되었다. 5G 및 IPTV 가입자 증가세가 유효하고, 가입자 모집 경쟁안정화에 따른 마케팅 비용 및 CAPEX 감소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안정화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2분기 이후에도 실적변동을 일으킬만한 변수는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SK 텔레콤 2Q21 매출액 컨센서스 추이

(단위: 억원)



자료: Quantwise

SK 텔레콤 2021년 매출액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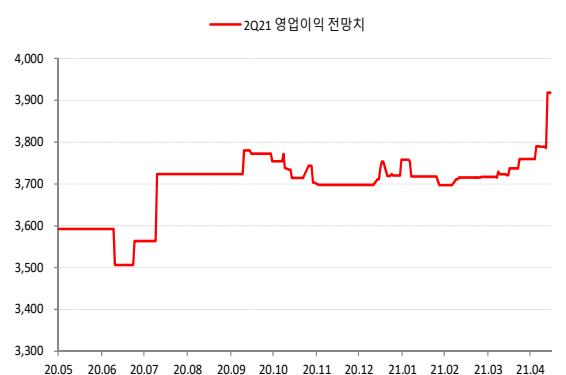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Quantwise

SK 텔레콤 2Q21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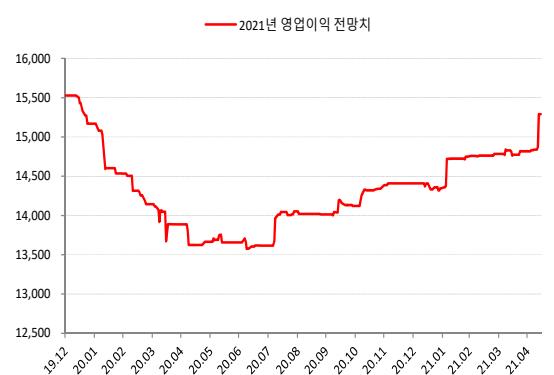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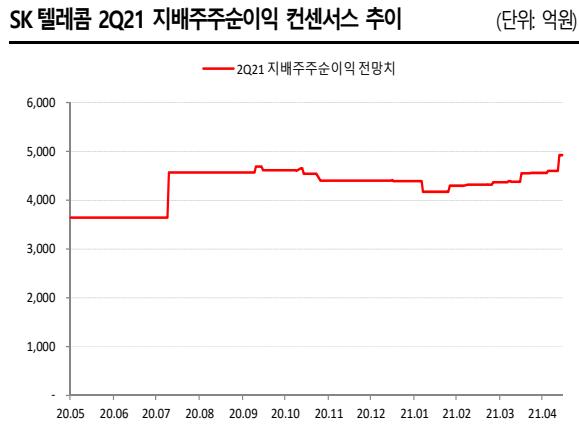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SK 텔레콤 2021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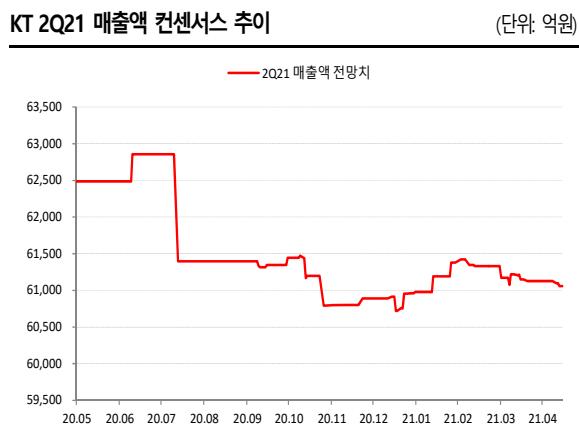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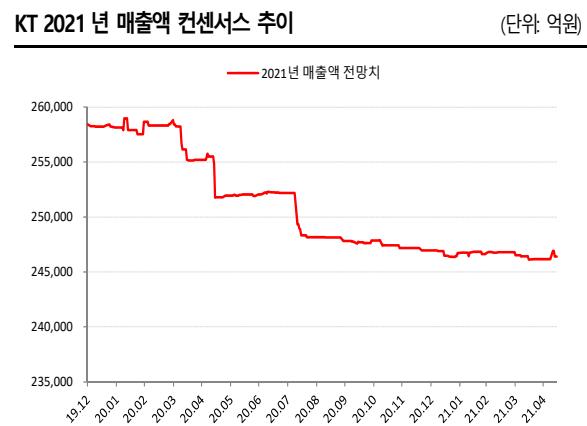
자료: Quantew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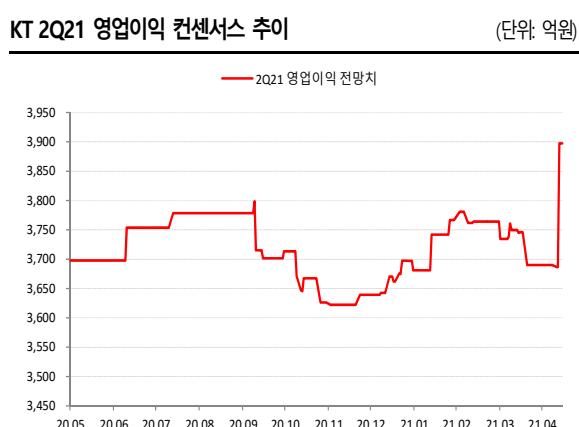
자료: Quantewise



자료: Quantew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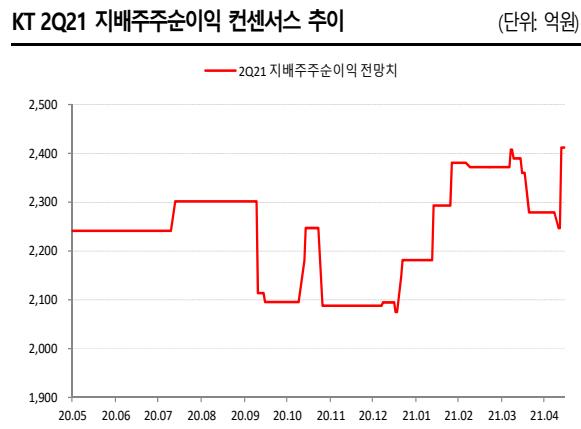
자료: Quantew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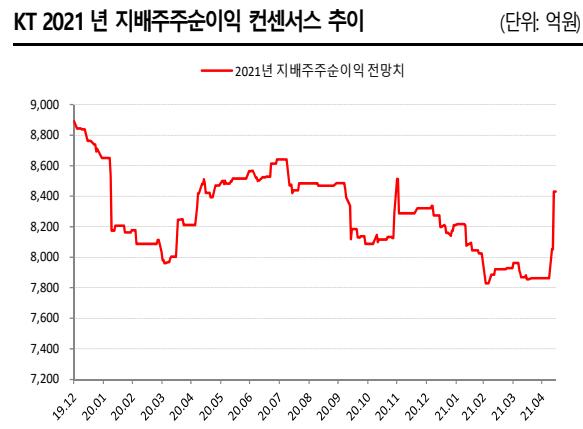
자료: Quantewise



자료: Quantewise



자료: Quantw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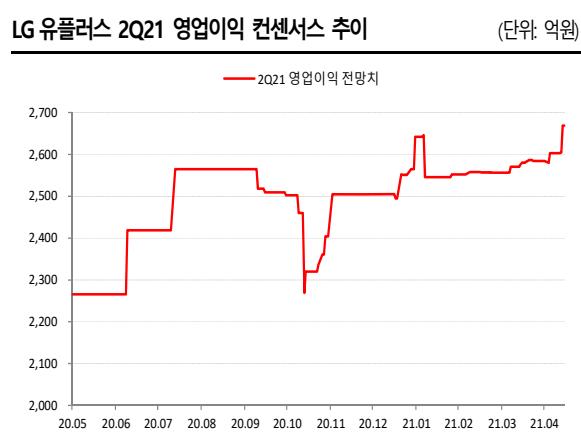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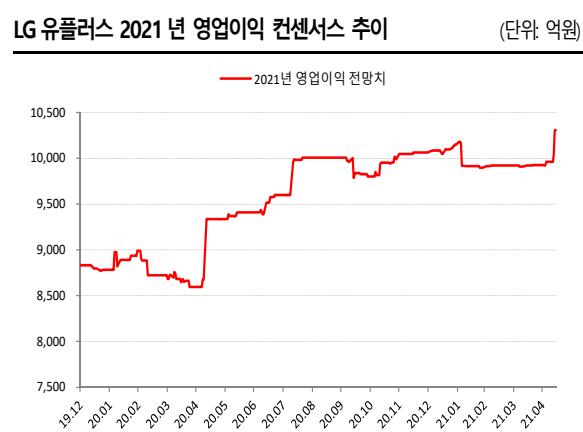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자료: Quantw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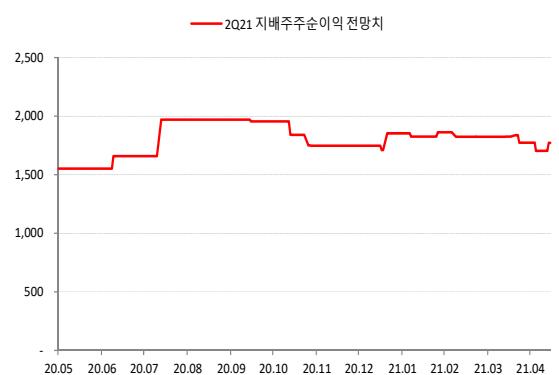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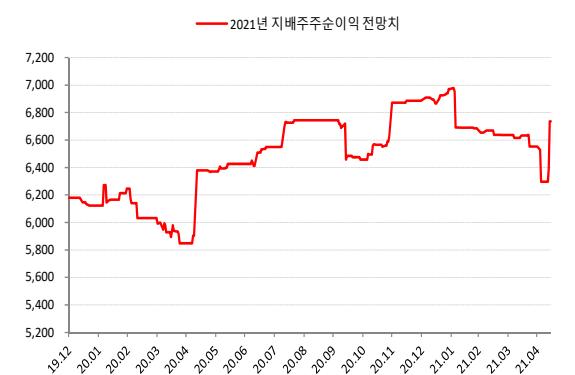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LG 유플러스 2Q21 지배주주순이익 컨센서스 추이 (단위: 억원)



자료: Quantwise

LG 유플러스 2021년 지배주주순이익 컨센서스 추이 (단위: 억원)



자료: Quantwise

통신 3사 분기별 컨센서스 상 실적전망 추이

(단위: 억원)

	1Q20A	2Q20A	3Q20F	4Q20F	1Q21A	2Q21F	3Q21F	4Q21F	2020A	2021F	oy
매출액											
SK텔레콤	44,504	46,028	47,308	48,406	47,805	48,553	49,218	50,208	186,247	195,783	5.1%
KT	58,317	58,765	60,012	62,073	60,294	61,059	61,764	63,594	239,167	246,711	3.2%
LG유플러스	32,866	32,726	33,410	35,173	34,168	34,539	35,157	36,527	134,176	140,392	4.6%
영업이익											
SK텔레콤	3,020	3,595	3,615	3,263	3,888	3,918	3,897	3,513	13,493	15,216	12.8%
KT	3,831	3,419	2,923	1,668	4,442	3,898	3,522	2,326	11,841	14,187	19.8%
LG유플러스	2,198	2,397	2,512	1,755	2,756	2,669	2,731	2,205	8,862	10,361	16.9%
지배주주순이익											
SK텔레콤	3,094	4,272	3,869	3,808	5,583	4,927	5,894	5,908	8,899	14,090	58.3%
KT	2,083	1,766	2,034	697	3,026	2,412	2,259	1,203	6,192	7,184	16.0%
LG유플러스	1,450	1,471	3,969	-2,222	1,964	1,773	1,897	1,403	4,388	5,187	18.2%

자료: Quantwise

(4) 수급

업체별 수급 흐비는 엇갈렸다. SK 텔레콤은 연초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연초 이후 5월 15일까지 총 1조 2,819 억원을 순매수하면서 SK 텔레콤 주가 상승을 전인했다. 양호한 실적과 더불어 자회사의 IPO 추진에 따른 가치 부각, 분기 배당 실시 발표 및 중간배당의 확대 가능성성이 SK 텔레콤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진 원인이다. 특히 분할 발표 이후에도 외국인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는데 분할 이후에도 안정적인 배당과 자회사 가치부각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통신주의 특성상 주가는 외국인 매수세와 그 흐름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아 SK 텔레콤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할 전망이다. 2020년 배당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KT는 기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불확실했던 배당정책을 명확히 하고 미디어/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미래 먹거리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대비 부진한 주가수익률을 기록했던 LG유플러스도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통신업 본업이 좋아지고 있는 만큼 통신업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LG유플러스에 대한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 3사 월별 기관 및 외국인 순매수 금액

(단위: 억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기관 순매수 금액	외국인 순매수 금액	기관 순매수 금액	외국인 순매수 금액	기관 순매수 금액	외국인 순매수 금액
1월	-1,637	2,208	-706	40	-566	87
2월	-1,512	2,290	1,491	-762	-280	-570
3월	-239	3,404	1,015	222	-404	141
4월	-2,123	3,950	519	47	-361	876
5월	-778	967	521	577	304	497
5월 누계	-6,290	12,819	2,839	123	-1,307	1,030

자료: Quantwise

주: 5월은 5월 14일까지

SK 텔레콤 일별 기관 순매수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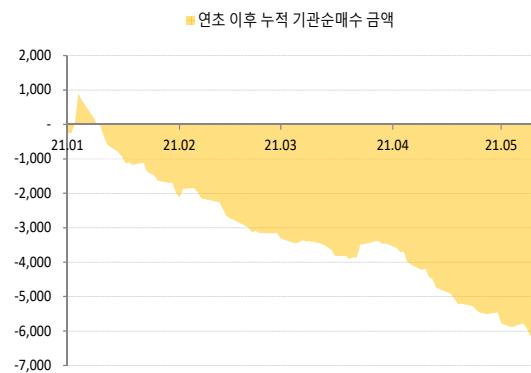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Quantwise

SK 텔레콤 연초 이후 기관 누적 순매수 금액 추이

(단위: 억원)



자료: Quantwise

SK 텔레콤 주가 Vs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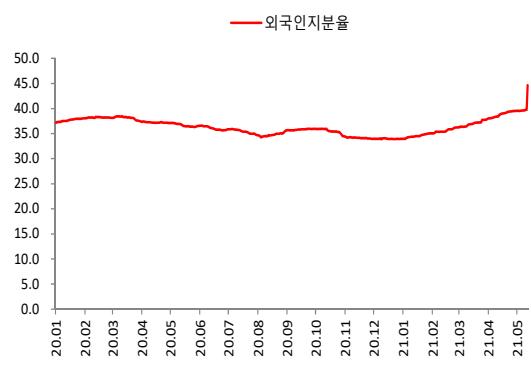
(단위: 원, %)



자료: Quantwise

SK 텔레콤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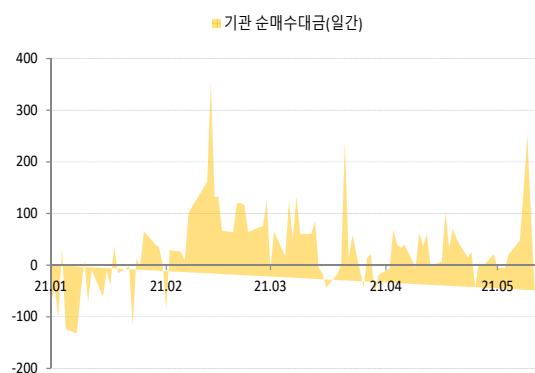
(단위: %)



자료: Quantwise

KT 일별 기관 순매수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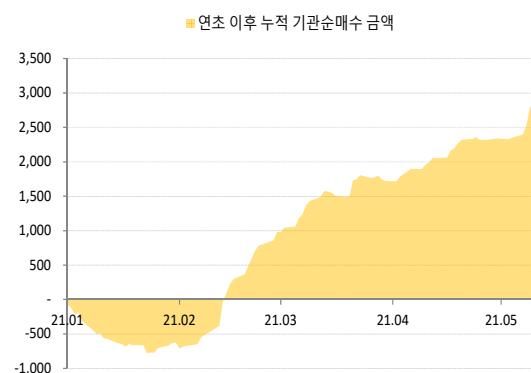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Quantwise

KT 연초 이후 기관 누적 순매수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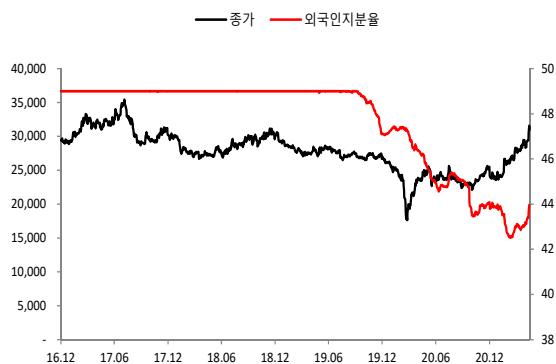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Quantwise

KT 주가 Vs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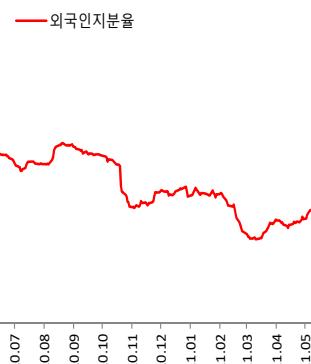
(단위: 원 %)



자료: Quantwise

KT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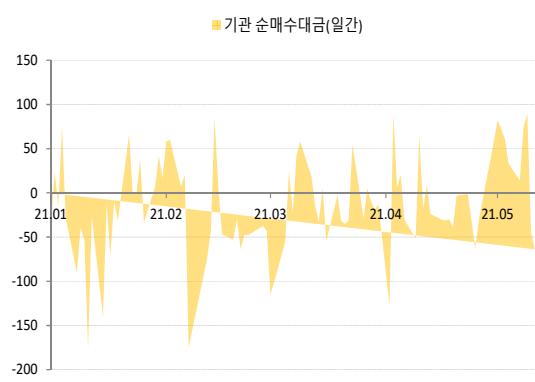
(단위: %)



자료: Quantwise

LG 유플러스 일별 기관 순매수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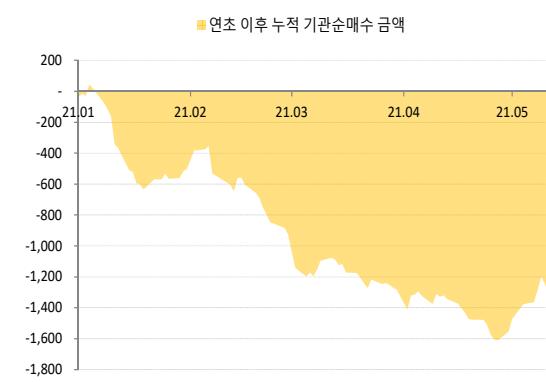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Quantwise

LG 유플러스 연초 이후 기관 누적 순매수 금액 추이

(단위: 억원)



자료: Quantwise

LG 유플러스 주가 Vs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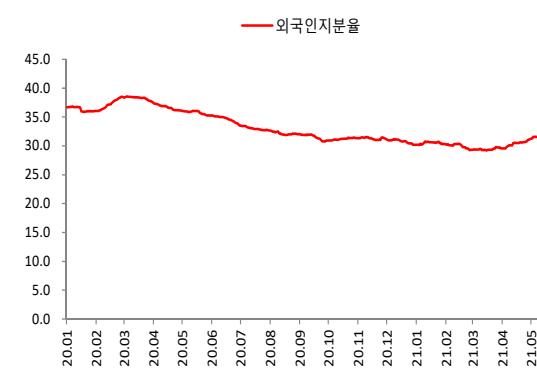
(단위: 원 %)



자료: Quantwise

LG 유플러스 외국인 지분율 추이

(단위: %)



자료: Quantwise

(5) 공시지원금 및 요금제

4 월 이후에도 공시지원금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즉 안정적인 시장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3 월과 유사한 흐름인데 3 월 공시지원금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5G 순증가입자는 81.4 만명으로 전년 월 평균 5G 순증가입자 60 만명을 넘어섰다. 이제 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휴대폰 교체 수요 시 5G 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단말기도 대부분의 신규 단말기가 5G 용으로 출시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입자 획득 비용(SAC: Subscriber Acquisition Cost)이 과거 대비 많이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5G 주요 단말기 공시지원금 현황

(단위: 원)

통신사	상품명	공시일	출시가격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판매가격
SK텔레콤	갤럭시Z 폴드2 5G 256G	2021.01.06	2,398,000	500,000	75,000	1,823,000
SK텔레콤	갤럭시 노트 20 5G 256G	2021.05.12	1,100,000	480,000	72,000	548,000
SK텔레콤	갤럭시 S21 5G 256G	2021.01.22	999,900	450,000	67,500	482,400
SK텔레콤	갤럭시 S20 플러스 5G 256G	2020.09.04	1,248,500	480,000	72,000	696,500
SK텔레콤	iPhone 12 mini 256G	2021.04.01	1,155,000	340,000	51,000	764,000
SK텔레콤	iPhone 12 256G	2020.10.30	1,287,000	110,000	16,500	1,160,500
SK텔레콤	iPhone 12 Pro Max 256G	2020.11.20	1,606,000	110,000	16,500	1,479,500
SK텔레콤	LG WING 128G	2021.02.17	1,098,900	500,000	75,000	523,900
KT	갤럭시Z 폴드2 5G 256G	2021.02.18	2,398,000	700,000	105,000	1,593,000
KT	갤럭시 노트 20 5G 256G	2020.09.30	1,100,000	500,000	75,000	525,000
KT	갤럭시 S21 5G 256G	2021.01.16	999,900	450,000	67,500	482,400
KT	갤럭시 S20 플러스 5G 256G	2020.10.08	1,248,500	480,000	72,000	696,500
KT	iPhone 12 mini 256G	2020.07.03	1,155,000	390,000	58,500	706,500
KT	iPhone 12 256G	2020.09.30	1,287,000	150,000	22,500	1,114,500
KT	iPhone 12 Pro Max 256G	2020.09.30	1,606,000	150,000	22,500	1,433,500
KT	LG WING 128G	2020.10.06	1,098,900	150,000	22,500	926,400
LG유플러스	갤럭시Z 폴드2 5G 256G	2021.02.19	2,398,000	800,000	120,000	1,478,000
LG유플러스	갤럭시 노트 20 5G 256G	2021.01.11	1,100,000	500,000	75,000	525,000
LG유플러스	갤럭시 S21 5G 256G	2021.01.22	999,900	500,000	75,000	424,900
LG유플러스	갤럭시 S20 플러스 5G 256G	2021.02.19	1,248,500	480,000	72,000	696,500
LG유플러스	iPhone 12 mini 256G	2021.01.11	1,155,000	400,000	60,000	695,000
LG유플러스	iPhone 12 256G	2021.01.11	1,287,000	400,000	60,000	827,000
LG유플러스	iPhone 12 Pro Max 256G	2021.03.19	1,606,000	400,000	60,000	1,146,000
LG유플러스	LG WING 128G	2021.01.11	1,098,900	600,000	90,000	408,900

자료: 각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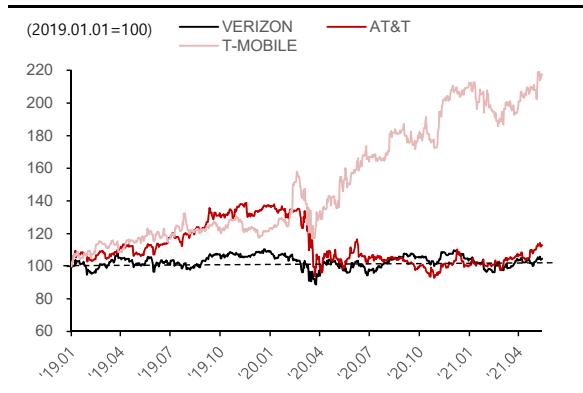
주1: 2021년 5월 14일 기준

주2: SK 텔레콤 5G 프라임 KT 슈퍼플랜 베이직 초이스, LG 유플러스 5G 프리미엄 에센셜 요금제 기준

(6) 글로벌 통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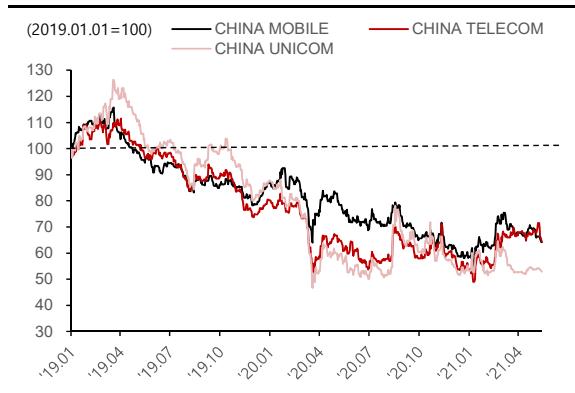
글로벌 통신사의 주가는 대체로 부진했다. 국내 통신사 대비 글로벌 통신사의 벨류에이션은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5G 서비스 확산이 예상보다 느린 것도 글로벌 통신사의 주가 부진 원인이다. 벨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중국 통신주의 경우 미국과의 무역분쟁 여파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요컨대 국내 통신사의 빠른 5G 전파와 벨류에이션 매력은 글로벌 통신시장 내에서도 여전히 매력적이라 판단한다.

미국 주요 통신사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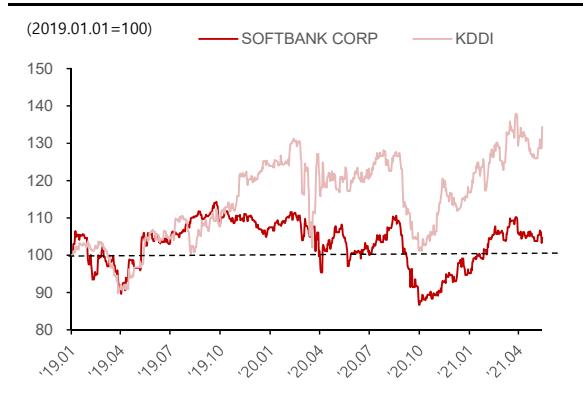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중국 주요 통신사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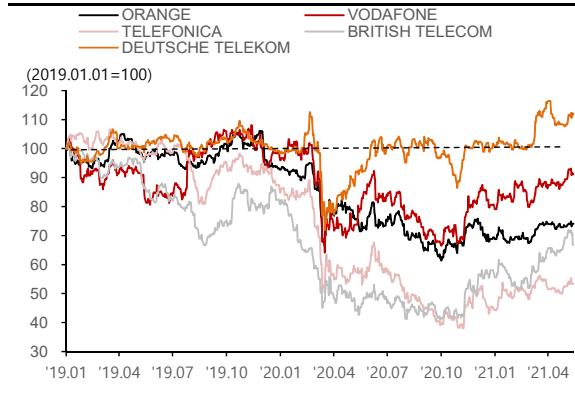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일본 주요 통신사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유럽 주요 통신사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글로벌 통신사 밸류에이션 테이블

(단위: 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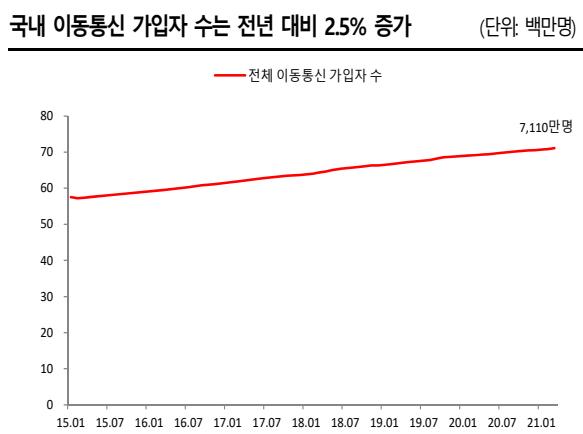
	PER			PBR			EV/EBITDA			ROE		
	FY2020	FY2021	FY2022	FY2020	FY2021	FY2022	FY2020	FY2021	FY2022	FY2020	FY2021	FY2022
VERIZON	11.9	11.6	11.4	3.58	3.13	2.78	7.4	8.1	7.9	27.5	28.1	25.3
AT&T	16.0	10.2	10.2	1.27	1.32	1.29	9.7	7.8	7.8	-3.1	12.7	11.7
T-MOBILE	33.8	58.5	40.4	2.56	2.54	2.39	10.5	9.1	8.8	6.5	4.9	6.0
SPRINT	13.3	n/a	n/a	0.88	n/a	n/a	5.7	n/a	n/a	-7.4	-0.6	-1.4
CHINA MOBILE	7.1	7.3	7.1	0.66	0.69	0.66	1.3	1.5	1.4	9.6	9.5	9.5
CHINA TELECOM	7.0	7.8	7.4	0.40	0.46	0.45	1.8	1.9	1.8	5.8	6.1	6.3
CHINA UNICOM	9.1	7.9	7.0	0.35	0.33	0.32	1.1	1.0	0.9	3.9	4.3	4.8
SOFTBANK CORP	13.0	12.2	12.1	4.84	4.42	3.85	7.3	7.1	7.0	38.6	38.1	33.1
KDDI	12.4	12.2	11.9	1.74	1.64	1.53	5.5	5.5	5.4	14.5	13.8	13.3
ORANGE	5.7	10.3	9.4	0.91	0.81	0.79	4.5	5.2	5.0	16.8	7.6	8.3
VODAFONE	21.9	16.7	14.1	0.77	0.75	0.72	7.8	7.5	7.3	3.7	5.1	5.9
TELEFONICA	9.3	10.3	9.3	4.87	1.33	1.23	5.8	5.4	5.6	30.5	12.7	14.0
BRITISH TELECOM	7.9	7.6	7.4	1.09	1.04	0.90	4.5	4.4	4.3	12.7	13.0	13.2
DEUTSCHE TELEKOM	17.0	15.5	13.0	1.96	2.06	1.89	6.0	6.7	6.5	12.3	9.5	12.5
SK TELECOM	11.6	11.0	8.6	0.71	0.95	0.87	4.9	5.7	5.6	6.4	8.9	10.4
KT	8.9	9.8	8.8	0.41	0.55	0.53	2.5	2.8	2.8	4.8	5.8	6.3
LG UPLUS	20.3	9.5	8.4	0.70	0.82	0.76	3.5	3.7	3.6	6.6	8.9	9.4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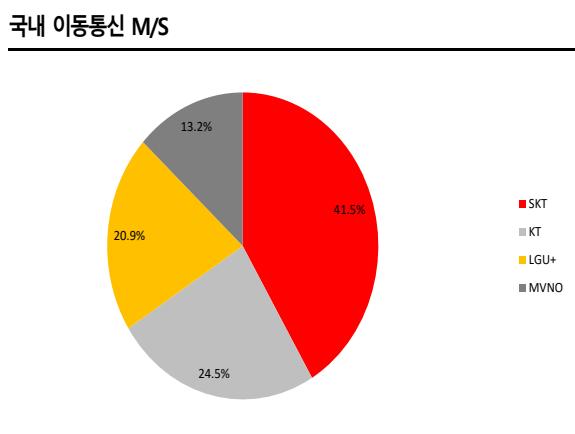
3. Data

(1) 이동통신 가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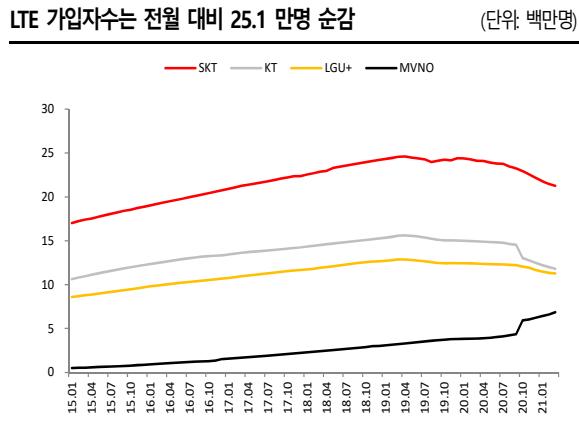
2021년 3월말 기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는 7,11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 5G 가입자는 1,448만명을 기록하였으며, 회선기준 전체 가입자 중 5G 가입자는 비중은 20.4%까지 증가했다. 3월 순증가입자는 81만명으로 전월 79명 대비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월 순증가입자는 70만명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연내 5G 가입자는 2,000만명 이상 확보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한다. 업체별 5G 가입자는 SK 텔레콤 674만명, KT 440만명, LG 유플러스 333만명을 확보했다. 전체 가입자 중 KT의 5G 가입자 비중이 25.3%로 가장 높고, SK 텔레콤과 LG 유플러스가 각각 22.8%, 22.5%를 기록했다. 5G 점유율은 전월과 동일하게 SK 텔레콤, KT, LG 유플러스가 각각 46.5%, 30.4%, 23.0%를 기록했다. 반면 LTE 가입자는 전월 대비 25만명이 감소하며 전체 가입자 중 72.0%를 기록했다. 전체 MVNO 가입자는 936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중 13.2%를 기록했다. 2020년 9월 이후 MVNO 가입자 비중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MVNO 가입자 중 5G 가입자는 7,375명에 불과할 정도로 LTE 중심으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 통신사의 경우 5G 중심의 가입자 확대 기조가 유효해 ARPU 상승에 따른 실적개선 전망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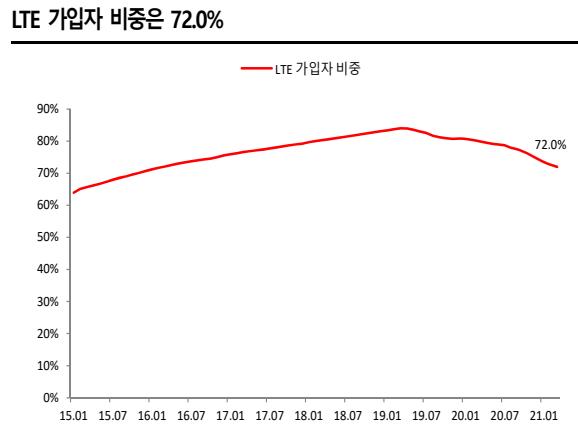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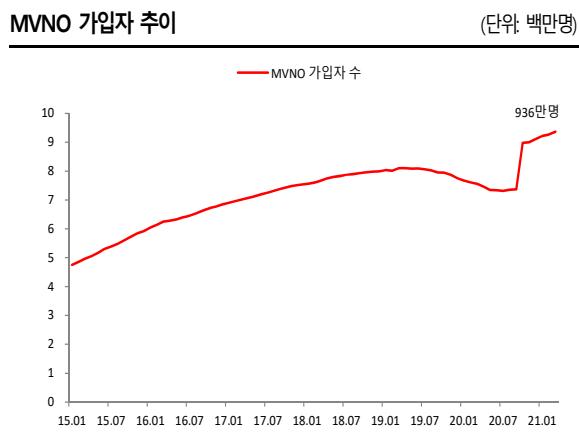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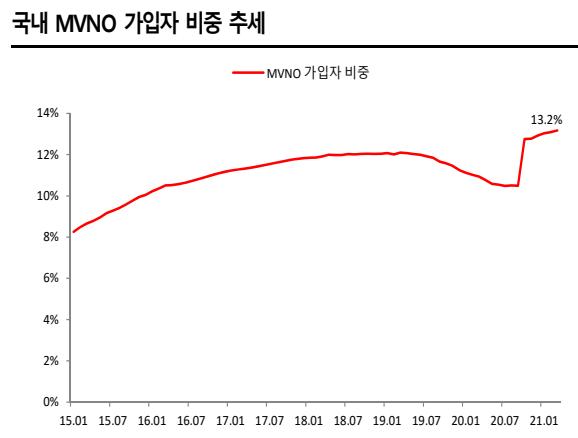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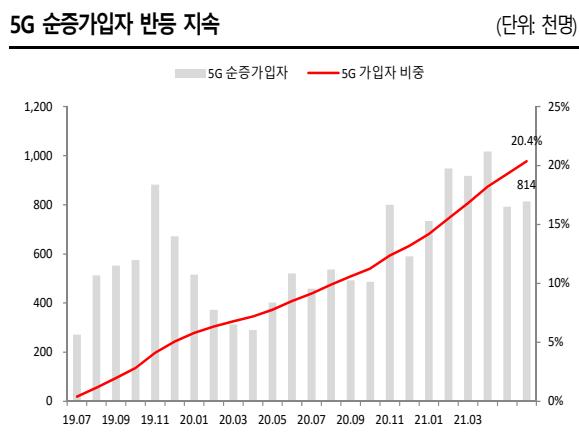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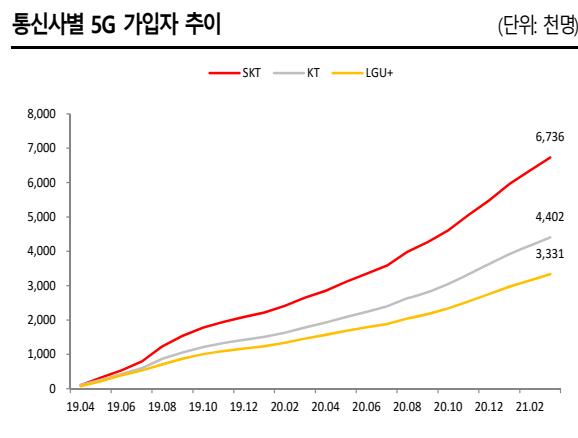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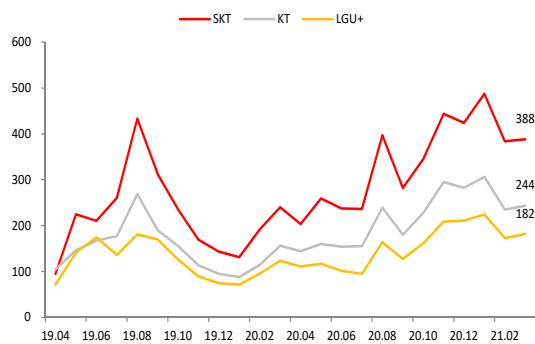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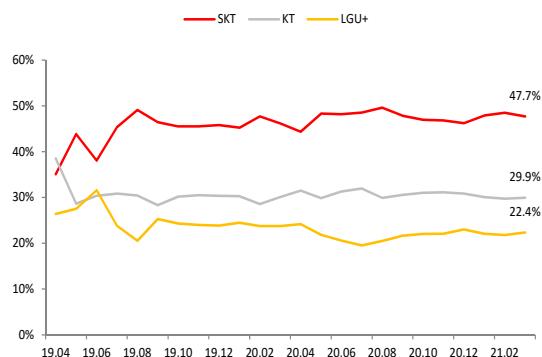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별 5G 순증가입자 수 추이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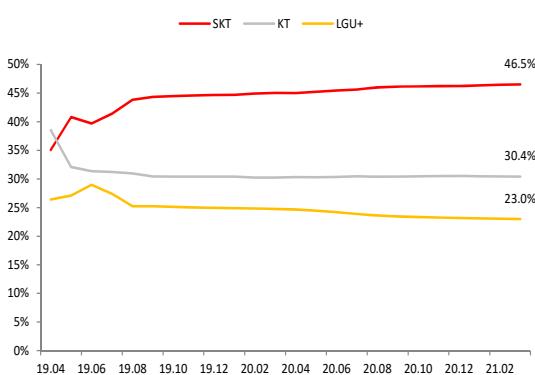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별 5G 순증가입 M/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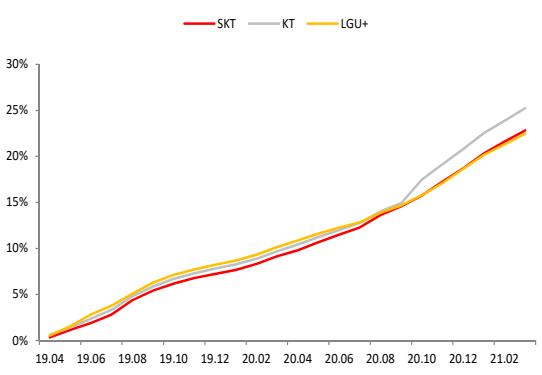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별 5G M/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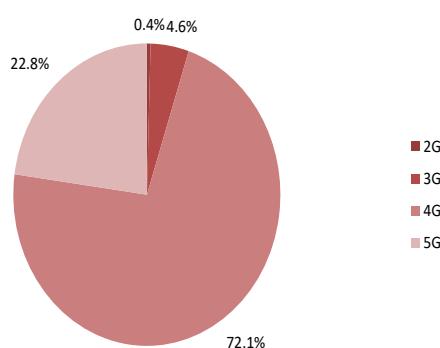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별 5G 가입자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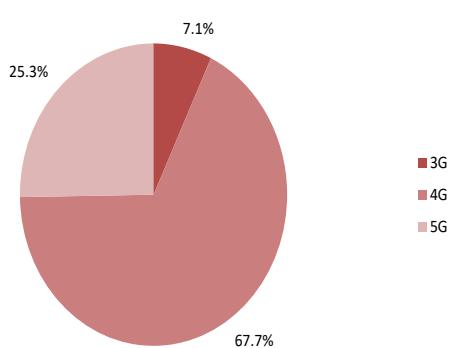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 텔레콤 세대별 가입자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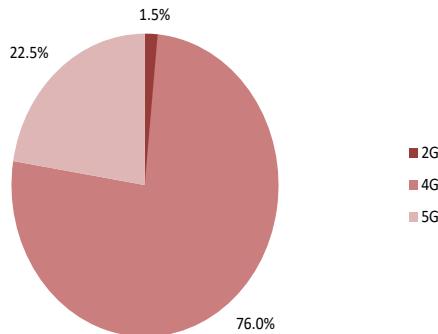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T 세대별 가입자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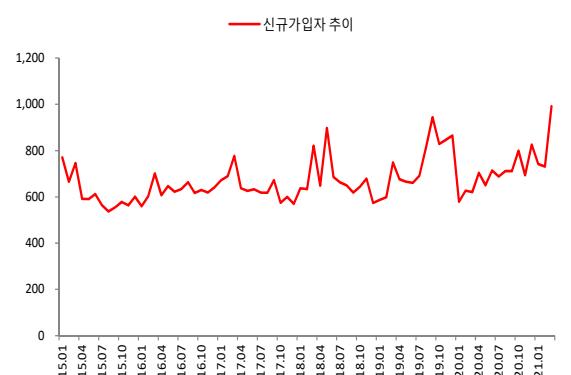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G 유플러스 세대별 가입자 점유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 신규가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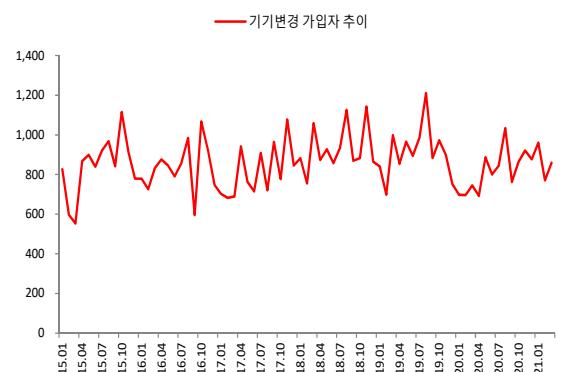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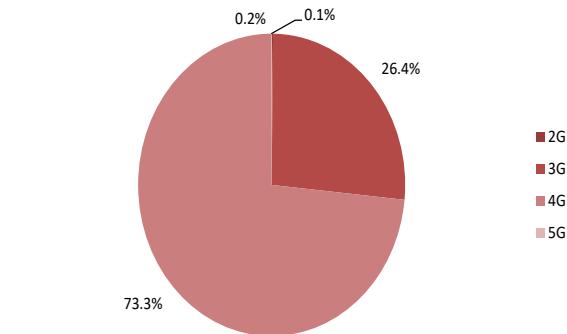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 기기변경 가입자 추이

(단위: 천명)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VNO 세대별 가입자 점유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 번호이동 가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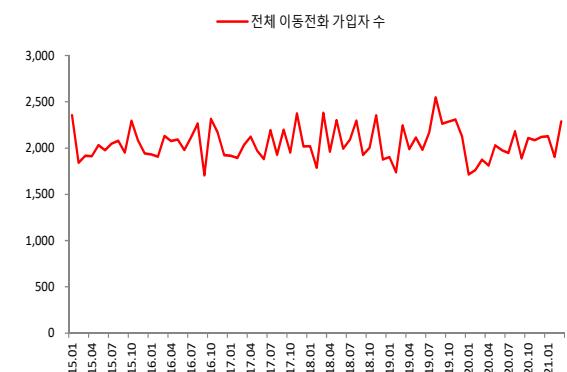
(단위: 천명)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 전체 가입자 추이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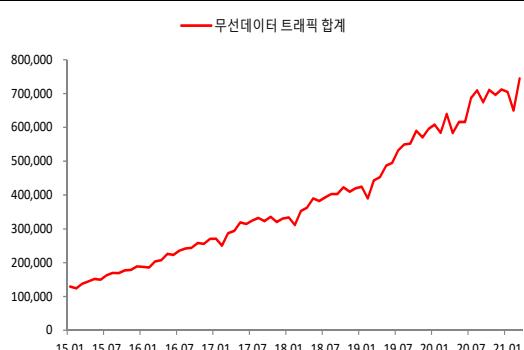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이동통신 데이터

2021년 3월말 기준 5G 가입자 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6.7GB이다. 전월 대비 3GB 이상 증가하였다. LTE 가입자의 1인당 데이터 사용량도 전월 대비 반등한 9.2GB를 기록하였다. LTE 가입자 중 MVNO 가입자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LTE 가입자 1인당 월별 데이터 사용량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가입자 전체로 보면 3월말 기준 1인당 10.8GB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역대 최고 수치에 해당한다. 고용량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콘텐츠에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데이터 사용량도 동반하여 상승하고 있는 만큼 이동통신 ARPU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무선데이터 트래픽 합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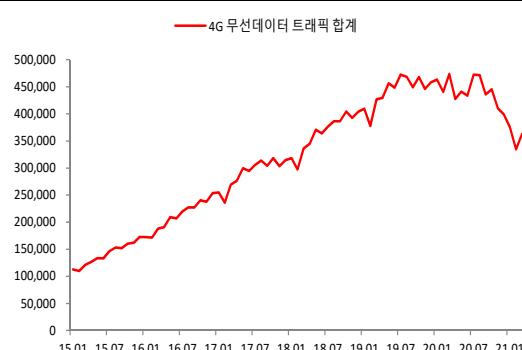
(단위: TB)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G 무선데이터 트래픽 합계 추이

(단위: TB)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무선데이터 트래픽 합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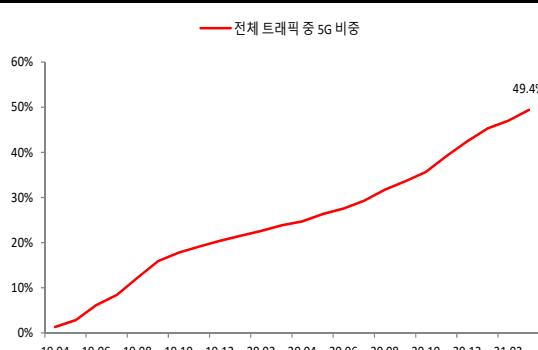
(단위: TB)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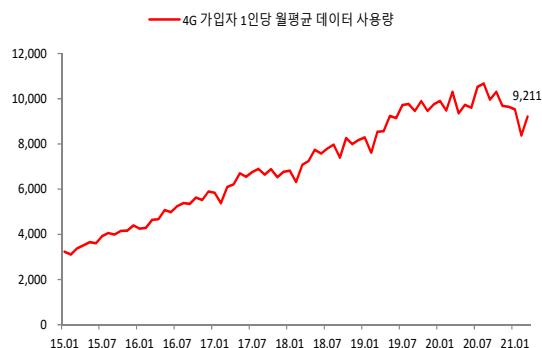
전체 트래픽 중 5G 트래픽 비중 추이

(단위: T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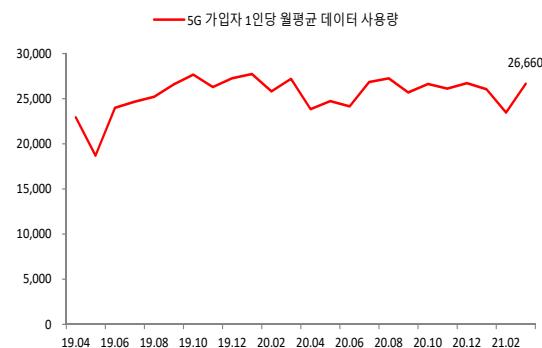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G 가입자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 (단위: MB)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가입자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 (단위: M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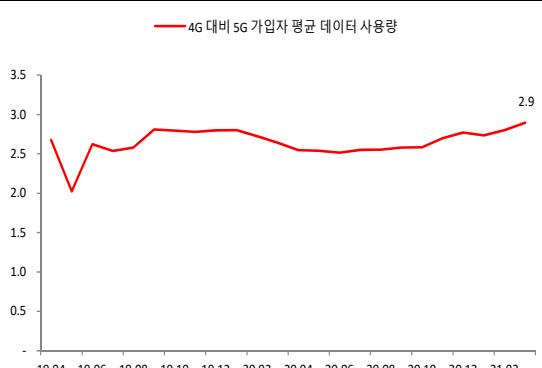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체 가입자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 (단위: M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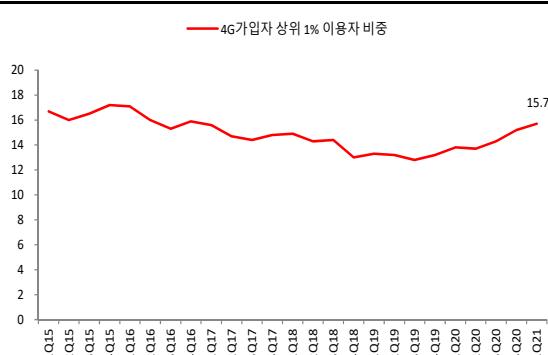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G 대비 5G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단위: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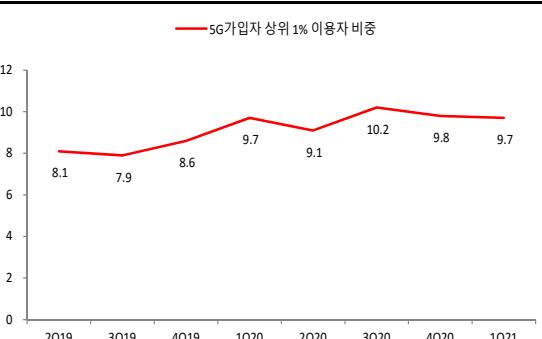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G 가입자 상위 1% 이용자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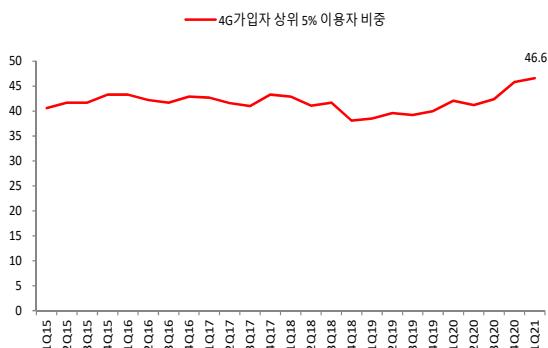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가입자 상위 1% 이용자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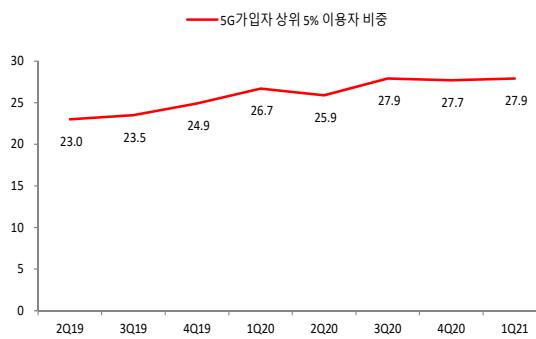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G 가입자 상위 5% 이용자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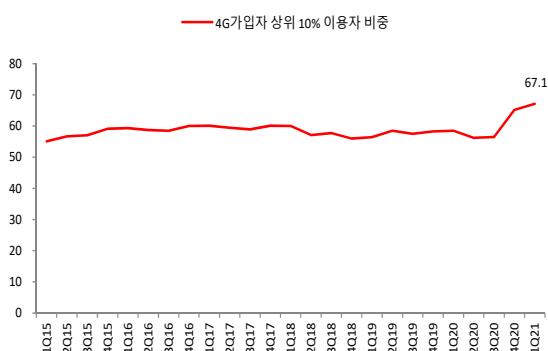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가입자 상위 5% 이용자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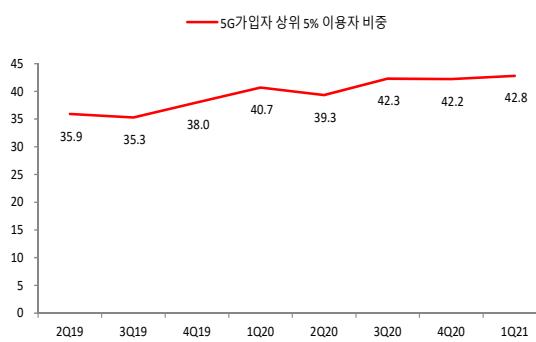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G 가입자 상위 10% 이용자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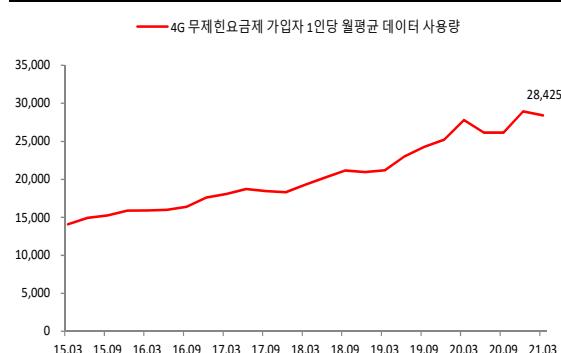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가입자 상위 10% 이용자 비중 (단위: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G 무제한요금제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 (단위: M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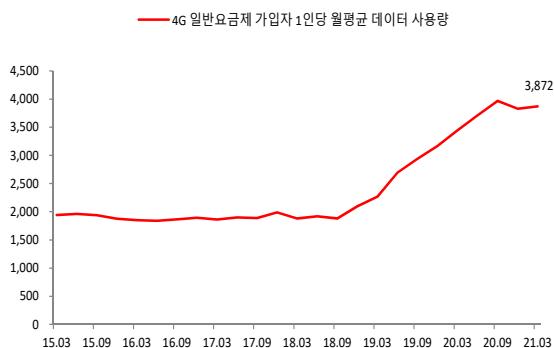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무제한요금제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 (단위: M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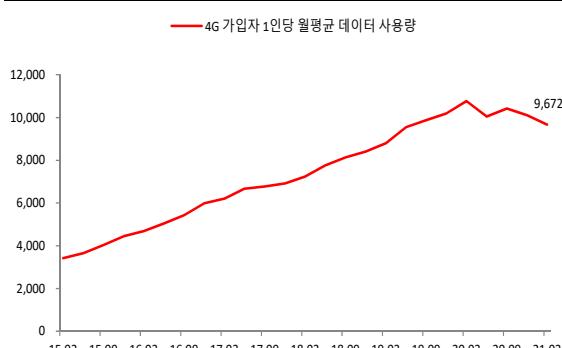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G 일반요금제 가입자 1 인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 (단위: M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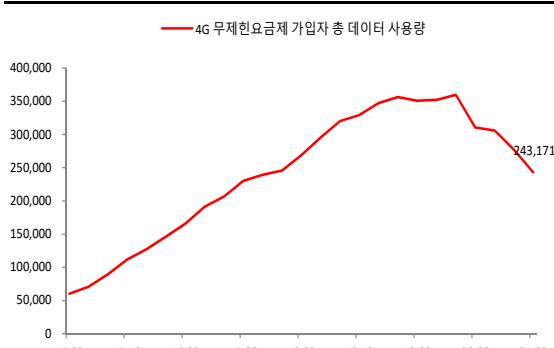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G 가입자 1 인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 (단위: MB)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G 무제한요금제 가입자 총 데이터 사용량 (단위: T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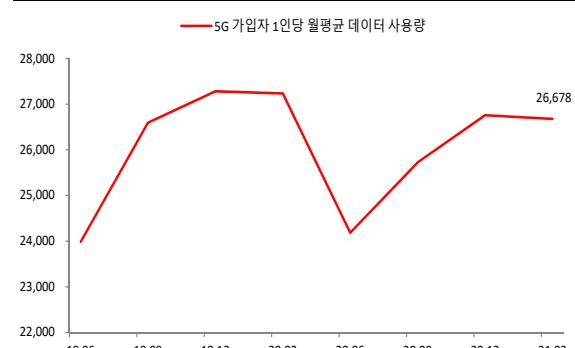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일반요금제 가입자 1 인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 (단위: M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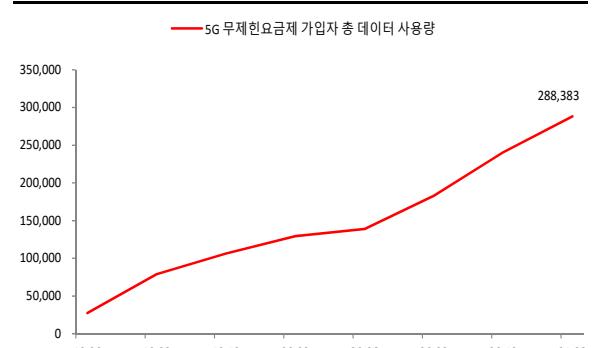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가입자 1 인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 (단위: MB)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무제한요금제 가입자 총 데이터 사용량 (단위: T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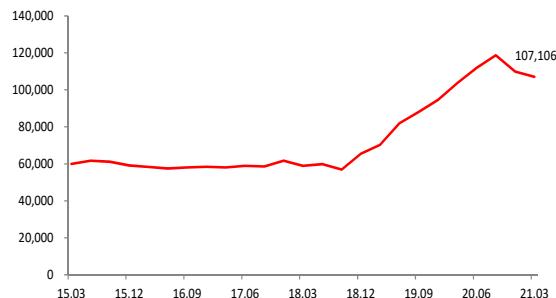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G 일반요금제 가입자 총 데이터 사용량

(단위: TB)

— 4G 일반요금제 가입자 총 데이터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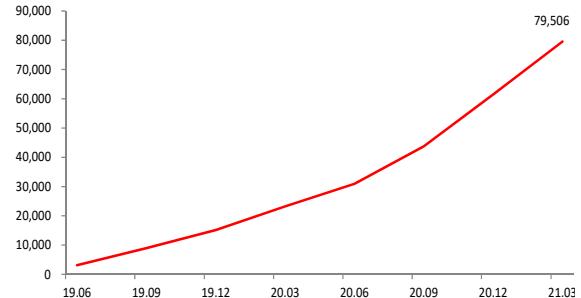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무제한요금제 가입자 총 데이터 사용량

(단위: TB)

— 5G 일반요금제 가입자 총 데이터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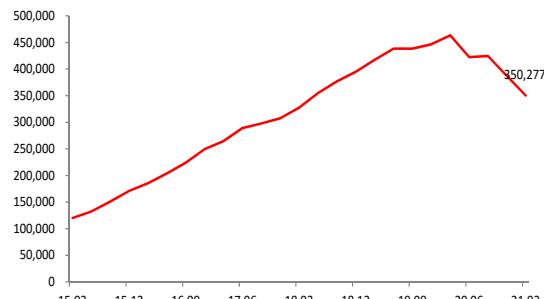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G 가입자 총 데이터 사용량

(단위: TB)

— 4G 가입자 총 데이터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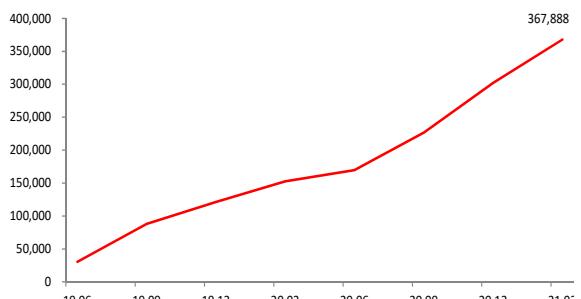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가입자 총 데이터 사용량

(단위: TB)

— 5G 가입자 총 데이터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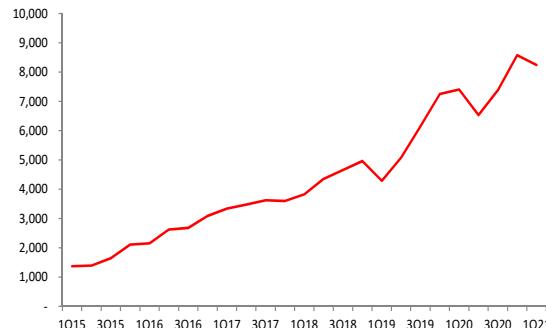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영상 사용 데이터

(단위: T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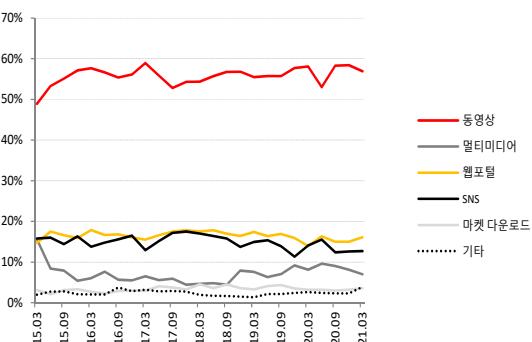
— 동영상 사용 데이터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콘텐츠 유형별 트래픽 비중

— 동영상
— 멀티미디어
— 웹포털
— SNS
— 마켓 다운로드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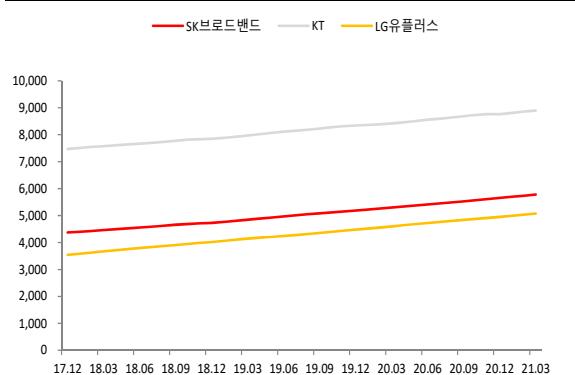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유선가입자

2021년 2월 유선 3사(KT, SK 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의 IPTV 가입자는 12.8만명 증가했다. 전월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이다. 업체별로 SK 브로드밴드가 4.6만명, KT 4.0만명, LG 유플러스가 4.2만명 순증을 기록했다. 초고속인터넷도 전월 대비 소폭 증가한 7.2만명 순증을 기록했다. KT가 3.6만명으로 가장 많은 순증가입자를 기록했으며, LG 유플러스와 SK 브로드밴드가 각각 2.4만명, 1.2만명을 기록했다. 반면 PSTN은 5.8만명 순감했다. KT는 4.7만명 순감했는데 전월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이다.

유선 3사 IPTV 가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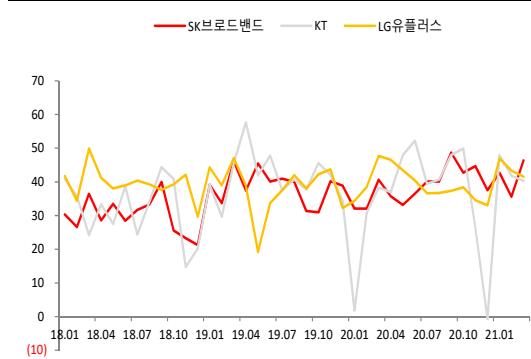
(단위: 천명)



자료: 각 사

유선 3사 IPTV 순증가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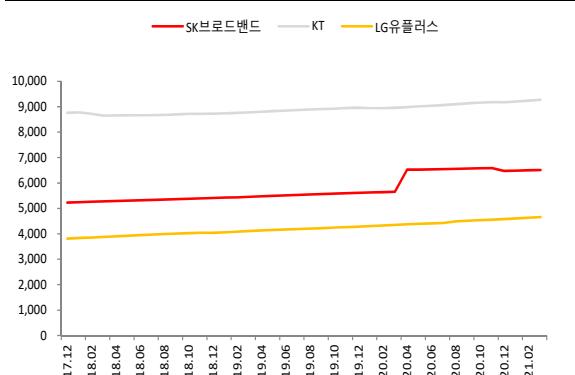
(단위: 천명)



자료: 각 사

유선 3사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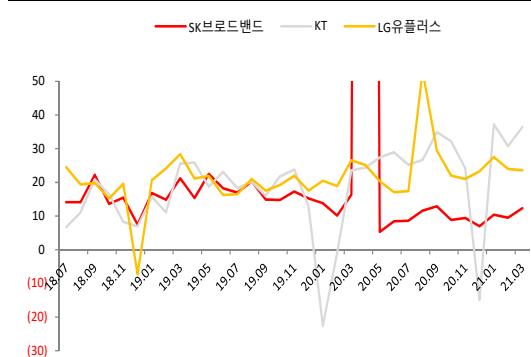
(단위: 천명)



자료: 각 사

유선 3사 초고속인터넷 순증가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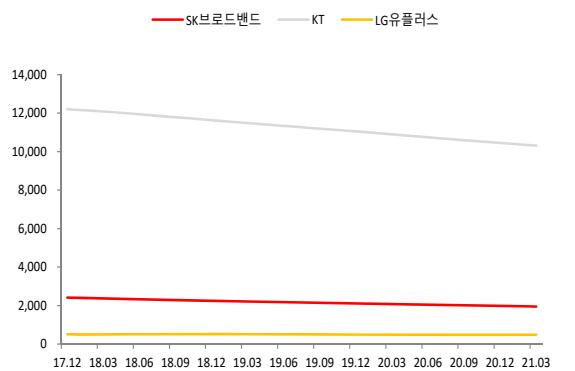
(단위: 천명)



자료: 각 사

유선 3사 PSTN 가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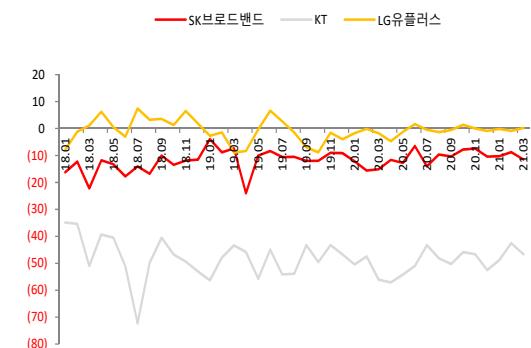
(단위: 천명)



자료: 각 사

유선 3사 PSTN 순증가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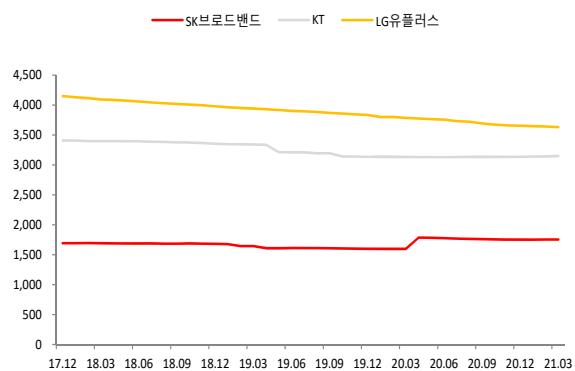
(단위: 천명)



자료: 각 사

유선 3사 VoIP 가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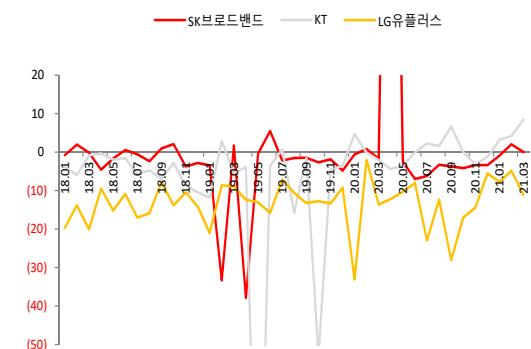
(단위: 천명)



자료: 각 사

유선 3사 VoIP 순증가입자 동향

(단위: 천명)



자료: 각 사